

교정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07

Vol. 554
2022 July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열정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교정공무원의 이야기



Re: Fine

작은 변화로부터



CONTENTS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카카오스토리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Re:member

- 04 교정 이모저모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06 역사와 오늘
대전교도소
- 14 생각의 접점
꾸준한 성장을 위한 멈추지 않는 발걸음
대전교도소
- 16 응원의 선물
헌신과 전문성으로 지키는 건강한 수용 생활
대전교도소 의료과
- 20 물고 담하다
수용자 교정교화로 사회에 공헌합니다
대전교도소 교워 유성현 & 교사 김형종
- 24 교정의 가치
변화를 이끄는 가슴 따뜻한 교정교화
대전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긍수
- 26 취미의 공유
질풍처럼 빠르게 치고 던져라!
여주교도소 야구동호회 질풍크로우즈
- 30 전문가에게 묻다
푸른 바다에 띄운 요트, 그리고 힐링
서울남부교도소 교워 안진수
& 인천요트아카데미 대표 류해석
- 34 나도 패션왕
여름이니까 패션도 휴가처럼!
홍성교도소 교사 이대섭
- 38 교정의 일기
국립산림치유원을 다녀와서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최지현

- 40 새로운 만남
최선이 최고다 '대한민국 태권도 간판'
이대훈 선수
- 44 여행 속 휴식
발 적시기 좋은 여행지
여름의 온도는 바다°C
- 48 문화가 증개
칸 영화제가 발견한 한국영화,
그다국적 협업의 성과
- 50 맛의 탐방
몸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삼계탕
- 52 교정 리포트
교정공무원의 직업소명의식 생성과
발달에 대한 내리티브 탐구
: 퇴직 여성 교정공무원 사례 연구①
- 56 교정 이모저모
제61회 한국교정학회·법무부 교정본부·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58 교정 NEWS
- 65 모범 공무원

※ 모든 촬영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했습니다.

월간 교정 2022년 07월호 Vol.554
발행인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2년 07월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교정본부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월간 <교정>은 웹진(cowebzine.com)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대상 대전교도소 교감 서선교 등 교정공무원·교정참여인사 18인 수상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교정공무원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까닭이다.

수용자 교화활동에 헌신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를 격려하기 위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전국 곳곳의 교정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한 수상자 18인에 축하와 격려의 박수가 쏟아진 현장을 소개한다.

글 김주희 사진 이정도



교정공무원·교정참여인사의 공로를 치하하다

지난 6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한 행사다. 1983년 처음 열린 이후 올해로 40회를 맞은 교정대상은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의 공로를 널리 알림으로써 교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됐다.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한국방송공사가 공

동 주최한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태현 서울신문사 사장, 김의철 KBS한국방송공사 사장 그리고 수상자 및 가족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다.

본격적인 시상식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서울신문사 곽태현 사장이 개식사를 전했다. 곽태현 사장은 “올해 40회를 맞이하기까지 교정대상을 빛내주신 수상자 여러분과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모든 공직자의 업이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지만 교정공무원만큼 책임감과 소명감이 필요한



공직도 드물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용자의 재범방지와 사회 복귀라는 교정 본연의 소임을 다하는 전국의 1만 6,000여 명의 교정공무원과 4,400여 명의 교정위원의 노고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KBS한국방송공사 김의철 사장도 축사를 전했다. 김의철 사장은 “막중한 책임감으로 소임을 다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은 수용자 인권 향상부터 원만한 사회 복귀 과정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공영미디어 KBS한국방송공사는 교정공무원들의 처우와 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영광의 얼굴

올해 교정대상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2명 총 18명이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객석에서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대상 수상자로 대전교도소 보안과 서선교 교감이 선정됐다. 서선교 교감은 28년 10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음악에 관심이 있던 수용자를 출소 후 종교 음악인으로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교도소에서 출소 직후 사망한 출소자의 유족이 경제적 형편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게 되자 유족을 대신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수용자의 심성 순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근정상에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김창식 교감, 성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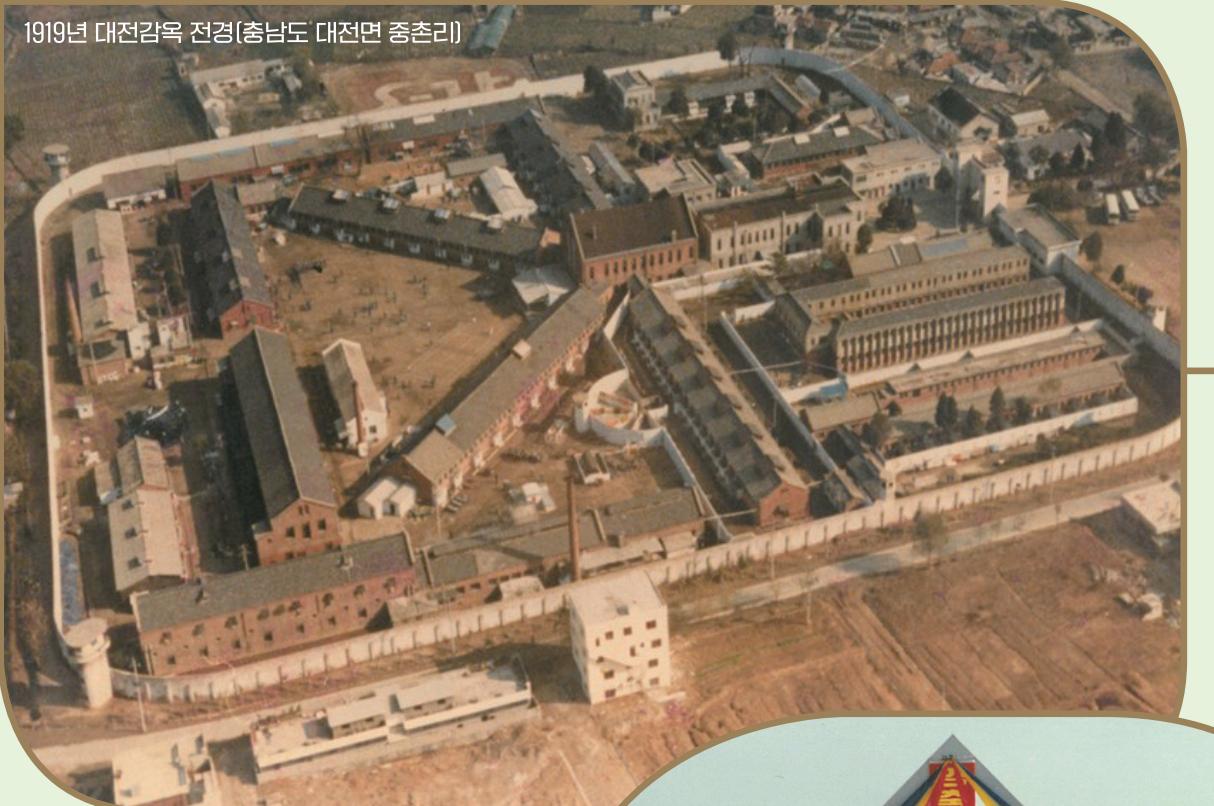
에 의정부교도소 보안과 정미라 교위, 창의상에 울산구치소 보안과 이선근 교감, 수범상에 서울남부구치소 의료과 한정수 교위, 교화상에 목포교도소 보안과 이광영 교위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교정참여인사 12명도 연단에 올랐다. 1996년부터 경북북부 제3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기독교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등 23여 년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서울남부구치소 박효심 교정위원이 박애상을 수상했다. 뒤이어 청주교도소 이현 교정위원이 박애상, 포항교도소 이진모, 광주교도소 이형한 교정위원이 자비상, 김천소년교도소 김태자 교정위원과 강릉교도소 최영자 교정위원이 자애상, 서울남부교도소 송기섭 교정위원과 경북북부제3교도소 구진섭 교정위원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경주교도소 최병오 교정위원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우숙자 교정위원이 봉사상, 순천교도소 남백원 교정위원이 장려상을 받았다.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이경자 자원봉사자는 수용자 인성교육에 기여하고 출소자를 위한 쉼터를 마련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수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눈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수상자를 치하하기 위해 단상에 섰다. 한동훈 장관은 “교정공무원은 새로운 삶을 간절히 바라는 수용자들의 길을 밝혀주고 옆에서 동행하는 동반자”라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현장의 교정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

법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믿음과 희망의 교정 대전교도소



희망의 교정행정을 위해 노력하는 대전교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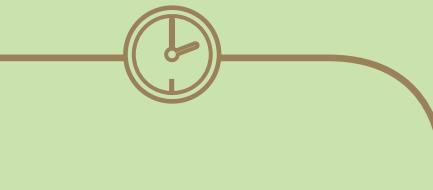
대전교도소는 1919년 중구 중촌동에서 시작해

1984년 지금의 유성구 대정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법과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교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기반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조화를 이루는
희망의 교정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



2000년 수용자 대상 전산교육실 개설



“
믿음과 감동을 주는 교정행정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2020년 대체복무교육센터 제1기 입소식



”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돋고
희망을 전하는 교정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시행과 직업훈련을 통해
출소 후에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수용 여건으로 열린 교정행정 실현

재범방지 및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 운영,
안정적 수용 생활을 위한 수용자 고충 상담 및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수용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처럼 보살피고 있습니다.”



교정교화 위해 헌신한 교정공무원 추모

대전교도소는 지난 2004년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다 희생된 고(故) 김동민 교감을 비롯한
순직 교정공무원을 위한 추모비를 세우고 매년 추모 행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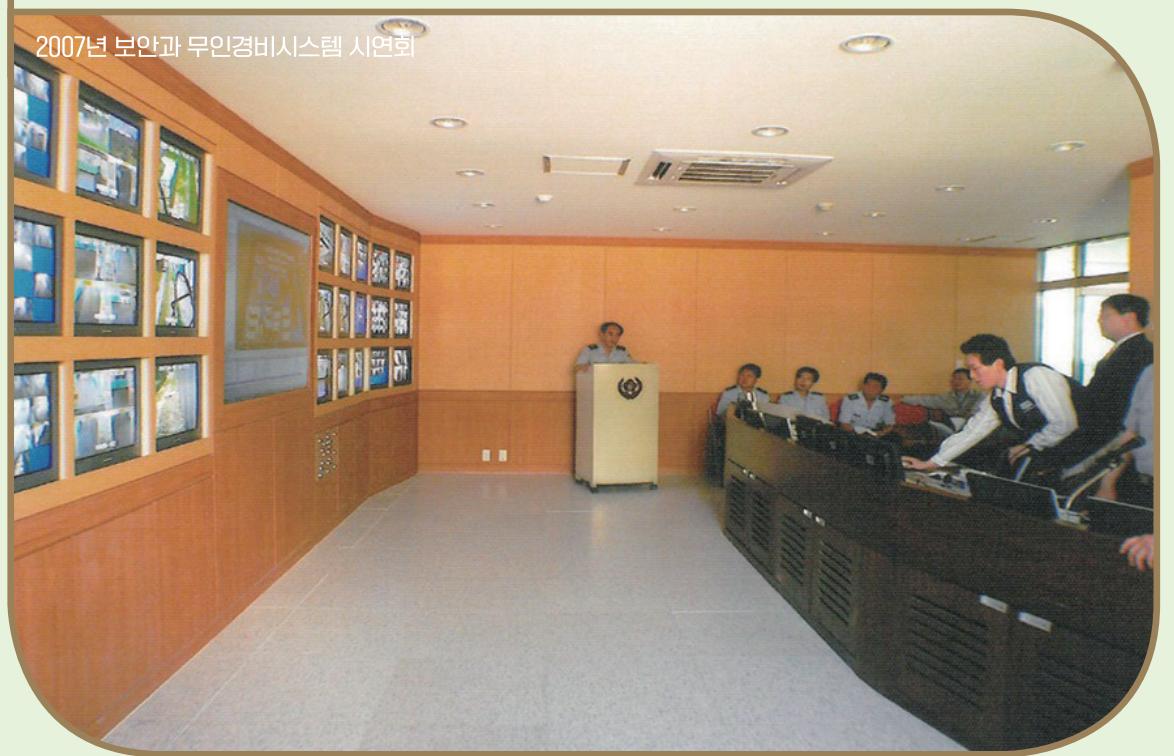


지역사회와의 소통, 더 나은 교정을 생각하다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선진화된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전교도소가 되겠습니다.



꾸준한 성장을 위한 멈추지 않는 발걸음 대전교도소 직원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용자 교정교화라는 목표를 이뤄 나가기 위해, 대전교도소 교정공무원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성장을 향해 나아간다.

지금보다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나는 []을 한다!



'업데이트'

의료과장 이준호

매해 수십만 건의 논문과 새로운 의학지식이 쏟아져요.
최신 의료 트렌드를 바탕으로 부족함 없는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공부에 매달립니다.



'오감을 통한 행복 찾기'

간호사무관 김미정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수용자에게 행복한 진료를 제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명상, 맛집 탐방, 감사 일기 쓰기 등을 통해 일상의 행복을 발견해 나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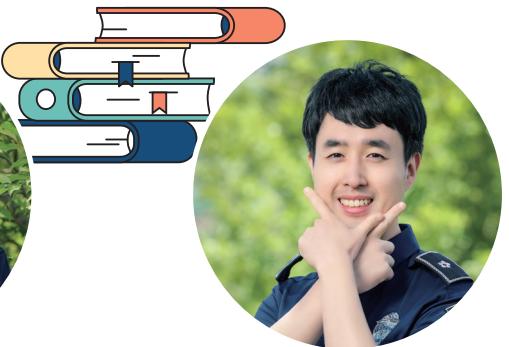
만들기 위해, 나는 []을 한다!



'응급구조사 공부'

교감 최영훈

10년 만에 다시 의료과에서 근무하게 됐어요.
전에 땄던 응급구조사 관련 내용을 거의 잊어버려서 요즘 다시 책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서관'

교위 전홍수

수용자들에게 전문적인 진료 과정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아들과 함께 도서관에 다니며 소통과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인문학 교양서 읽기'

교위 임제훈

수용자 교정교화와 진료 모두 결국은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이 없으면 수용자를 적절하게 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더군요.



'꾸준한 반복학습'

교사 김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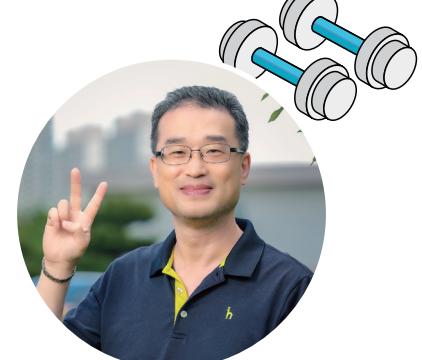
어떤 일을 잘하려면 지속적인 반복이 답인 것 같아요.
저의 전공인 간호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모든 증상과 질환을 한층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여행'

교사 도윤석

맡은 자리에서 기회 없이 일하려면 반드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해요. 저는 그 방법으로 여행을 택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면 일이 더 잘 잡히기에, 이것도 자기계발의 일종이라고 봐요.



'세 가지 건강 챙기기'

기술서기관 박준석

꾸준한 공부를 통한 '지식 건강',
독서·음악, 강상·명상을 통한 '정신 건강',
운동을 통한 '육체 건강' 등 세 가지 건강을 두루 챙기기 위해 애씁니다.

헌신과 전문성으로 지키는 건강한 수용 생활

대전교도소 의료과



엄정한 법 집행과 교정교화를 위해 외부와의 접촉이 최소화되는 교도소 특성상 수용자의 건강한 수용 생활은 의료과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대전교도소 의료과 직원들은 마치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아픈 수용자를 진료한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대전교도소 수용자들의 '건강 수호천사'

대규모 교정기관인 대전교도소는 그 규모만큼 크고 작은 질환을 가진 수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준호 과장과 24명의 직원들이 이끄는 의료과의 활동 범위는 매우 폭넓다.

"우리 의료과의 수용자 진료 건수는 한 달에 2만 건에 이르고 투약 처방도 4만 건에 가깝습니다. 저를 포함한 25명의 직원들이 이를 해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곧 대전교도소의 건강 수호천사'라는 생각으로 저희를 찾는 수용자를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 진료합니다."

대전교도소 의료과는 나날이 강화되는 수용자 인권과 갈수록 높아지는 의료 처우 기대에 부응해 수용자가 대전교도소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부터 면밀하게 건강을 파악한다. 초진 및 검사, 수용자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한 가족과의 연락 등을 통해 새로 들어온 수용자의 정보를 수집한다. 이 과정이 어찌나 꼼꼼한지 수용자조차 알지 못하는 질환을 알아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의료계장을 맡고 있는 손수민 교감의 설명이다.

"수용자 중 상당수는 보통의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다가 교도소에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의 진료를 거친 뒤에야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용자도 꽤 많습니다. 안타까우면서도 다행이죠. 모르고 지나가면 병을 키우게 되니까요. 누구에게나 그렇듯 수용자에게도 건강은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수용 생활을

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수양하는 동시에 출소 후를 대비한 직업 훈련도 해야 하는데 몸이 아프면 이러한 활동들을 제대로 해낼 수 없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곧 교정교화의 첫걸음인 셈입니다.”

수용자를 감동시키는 ‘진심 진료’

대전교도소의 수용자 투약률은 40% 내외로 전국 교정시설 중에서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정기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과는 수용자 투약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특히 수용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약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국 교정시설 최초로 원외처방제도를 도입, 수용자 건강관리 용이성과 수용자 가족의 편의성을 모두 높였다.

“교도소 입소 전 수용자가 다녔던 외부 의료시설의 진단서·소견서·처방전을 저희에게 전달하면 의무관이 진료 후 이를 참고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덕분에 외부 차입약의 반입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죠. 한편 부작용이나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용자가 원하는 대로 처방하지 않고 외부 의료시설의 자료를 참고하되 의무관의 진료나 원격 화상진료를 통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약을 처방합니다.”

이처럼 진심을 담은 대전교도소 의료과의 진료는 많은 수용자에게 건강을 되찾아줬다. 올 4월 한 수용자가 의료과에 찾아와 복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어 그 원인을 특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은 항문 내진·초음파 및 감별 등 의료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검진 수단을 동원해 대장 쪽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으며, 외부 병원의 검사 끝에 대장암을 잡아냈다. 수술 후 상태가 호전돼 복귀한 수용자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저희는 수용자의 기저질환을 꾸준히 관리하는 데에도 힘씁니다. 당뇨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고 해당 부위가 썩는 당뇨발 환자들에게 주말 포함 매일 포비돈요오드액 담금 처치를 30분간 해 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덕분에 발 상태가 급격하게 호전된 한 수용자는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치료를 거의 받지 못했는데 교도소에서 매일 당뇨발을 관리해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더군요. 이런 수용자들의 반응을 마주하면 저희도 부쩍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협업정신으로 이겨 낸 팬데믹

대전교도소 의료과는 2년 넘게 이어진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수용 생활을 하면서 죄를 뉘우치고 마음을 수양하는 동시에 출소 후를 대비한 직업 훈련도 해야 하는데 몸이 아프면 이러한 활동들을 제대로 해낼 수 없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곧 교정교화의 첫걸음인 셈입니다.”

관련 사망자 0'이라는 값진 성적표를 받았다. 방역 초기 매일 오전 7시 전 직원 PCR 검사, 확진자 발생 시 직원 및 수용자 전원 검사, 환자 격리 및 적절한 진료 등이 한데 모여 만들어낸 성과다.

“지난해 수용자 한 명이 팔다리 통증과 마비 증상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지 꽤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백신 부작용이라고 판단할 수 없었지만 의료과장님과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 끝에 백신 부작용의 일종인 ‘길랭·바레 증후군’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외부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더라면 회복이 더디거나 힘들었을지도 모르죠. 코로나19 시국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의료과가 최선의 결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유달리 끈끈한 협업정신이 있다. 확진자 발생 등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누가 먼저랄 할 것 없이 출근했다. 모처럼 휴일을 맞아 지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복귀를 택했을 정도다. 평소 서로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훈훈한 풍경은 찾아오지 않았을 터. 의료과의 단단한 팀워크를 중명해 주는 대목이다.

지금은 상황이 한결 나아졌지만, 전 세계 감염병 전문가들은 올 가을 코로나19 재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교도소 의료과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변종 바이러스 재유행에 대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수용자 백신 접종률을 현재의 80% 수준에서 8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그러려면 직원들의 심신 건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이번에 전달받은 청소기·커피·텀블러·전자레인지·살균 소독기를 잘 활용하겠다며 활짝 웃는 의료과 직원들. 이들의 건강한 팀 분위기가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MINI INTERVIEW

모든 일의 선두에
제가 있겠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간혹 난동을 부리거나 편안한 수용 생활을 위해 거짓 증상을 말하는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워낙 바쁘다 보니 일손도 모자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인 제가 모든 일에 앞장서겠으니, 앞으로도 저를 잘 믿고 따라와 주세요!”

의료과 이준호 과장

김형종

교사

유성현

교위



수용자 교정교화로 사회에 공헌합니다

대전교도소 교위 유성현 & 교사 김형종

서로의 존재 덕분에 행복한 선후배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좋은 사회 만들기'에 힘을 보탠다.
교정공무원도 마찬가지다.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이끌며
우리 사회의 안전도 향상에 일조한다.
오랜만에 조사실 바깥에서 얼굴을 마주한
유성현 교위와 김형종 교사는
교정공무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직업적 자부심을 한층 끌어올렸다.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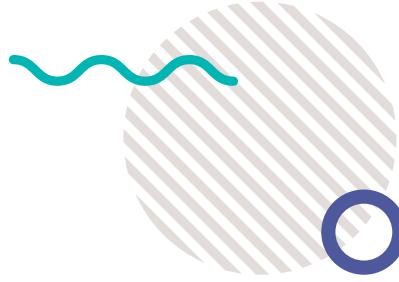
유성현 교위 — 조사실에서만 만나다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얼굴을 보니 느낌이 새롭네요! 예전 같았으면 함께 등산도 하고 술도 한 잔 나눴을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선배로서 미안한 마음이 커요.

김형종 교사 — 아닙니다, 교위님! 선배님들과 많은 자리를 갖지 못한 게 어렵기도 하지만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 앞으로 좋은 기회를 자주 마련할 수 있겠죠?(웃음)

유성현 교위 — 물론이죠! 조만간 함께 등산 한 번 갑시다!(웃음) 김 교사가 조사실에 온 지도 어느덧 8개월 차에 접어들었네요. 쉽지 않은 업무인 만큼 배우고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김형종 교사 —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교도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수용자와 각종 사건·사고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제 우상과도 같은 교위님과 손발을 맞추고 있기에 하루하루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조사실에 자원해서 온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사실 저는 대전교도소로 초임 발령을 받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가방을 들고 새벽같이 조사실로 출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사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교위님이 법무부 인권국과 법무연수원에서 강사로 활약하면서도 대전교도소 백년사를 짐필하시는 모습에 '언젠가 저분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꿈이 이뤄져서 정말 좋습니다!

유성현 교위 — 저도 8개월 전 '조사 업무를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김 교사를 보며 '멋진 후배와 함께 일하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아서 내심 든든합니다. 저는 김 교사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고 김 교사는 저로 인해 즐거운가, 이보다 더 좋은 선후배 사이가 또 있을까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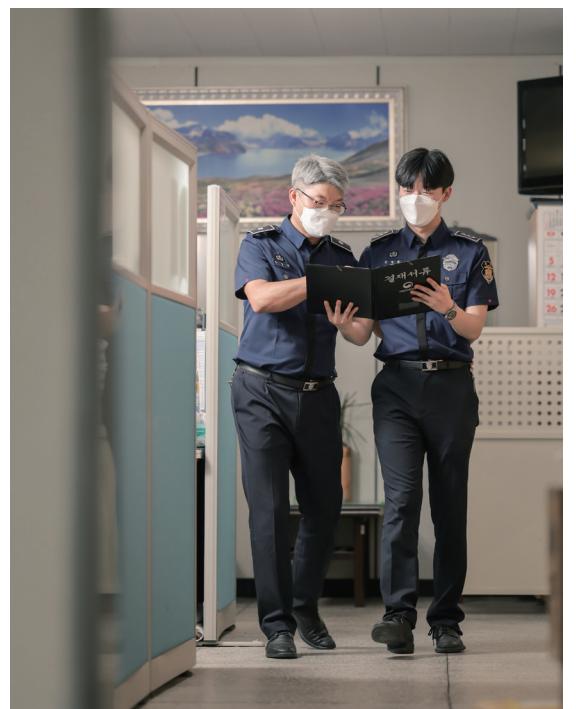


다시금 되새기는 교정공무원의 존재 이유

김형종 교사 — 조사실에서 비교적 거칠고 말이 잘 안 통하는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어떤 날은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라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워님께 꼭 여쭙고 싶었습니다. 교정공무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성현 교위 — 교정공무원 업무의 밑바탕이 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 시설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김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수용자 교정교화, 건전한 사회 복귀, 수용자 처우 및 권리 보장이 교정공무원의 존재 이유죠. 교정공무원을 간수 혹은 형무관이라고 부르던 예전에는 수용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데 업무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첫 번째 목표가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사회화예요. 즉, 수용자가 사회에 나갔을 때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인도함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오늘날 교정공무원의 역할인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정공무원은 수용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하고 자기계발에도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수용자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할 수 있는 포용력도 갖춰야 하죠. 이것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김형종 교사 — 평상시 규율위반 수용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수용자 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교정공무원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교워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더 넓고 깊은 안목으로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바라보고 그에 걸맞게 열심히 수양하겠습니다!



수용자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하고 자기계발에도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수용자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할 수 있는 포용력도 갖춰야 하죠.
이것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이 아닌가 싶어요.

유성현 교위



평상시 규율위반 수용자들을 상대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수용자 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더 넓고 깊은 안목으로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바라보고 그에 걸맞게 열심히 수양하겠습니다!

김형종 교사



교정교화로 완성하는 직업적 자부심

김형종 교사 — 기회가 기회인만큼 조사 업무에 관한 것도 질문을 드릴게요.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수용자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시나요?

유성현 교위 — 조사 업무라는 게 아무래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나자마자 조사를 시작하면 아무래도 마음의 문이 닫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용자를 수용동에서 조사실로 데리고 오는 짧은 시간 동안 사건·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되도록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수용생활에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밖에 있는 가족은 잘 지내고 있는지, 직업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 수용자 개인에 대한 질문을 던지죠. 그렇게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가 아니라 옆집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수용자에게 다가서면 수용자도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도 생각보다 빨리 끝나죠. 제 생각에 수용자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적 자부심과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수용자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만 대하면 근무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지만, 수용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허물없이 대하고 먼저 마음을 열면 수용자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고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도 보다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업무 분위기도 좋아지고 직업적 사명감도 저절로 높아지겠죠. 결국 교정공무원으로서의 만족도와 자부심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셈입니다.

김형종 교사 — 백범 김구 선생도 '모든 것은 내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죠. 교워님 덕분에 교정공무원으로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와 추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유성현 교위 — 저야말로 김 교사와 특별한 기억을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곧바로 저를 찾아 주세요. 정답은 아닐지라도 정답으로 향하는 힌트 정도는 충분히 전해 줄 수 있을 겁니다.(웃음)



교도소에 온 수용자 대부분은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동시에
보다 나은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대전교도소 전궁수 교정협의회장은 이들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
희망의 등불을 높이 들고 교정교화의 길에 나섰다.
벌써 26년째 이어 오고 있는 일이다.

대전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궁수

글 강진우 사진 홍승진

수용자들과 함께 나눈 수상의 기쁨

대전교도소 전궁수 교정협의회장에게 있어 지난 2020년 7월 9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의미 깊은 날이다.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그동안 교정교화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정대상 봉사상을 수상한 날이기 때문이다. 전궁수 회장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수용자들을 위해 써 달라며 봉사상 상금 전액을 대전교도소에 기부했다. 수용자들과 함께한 끝에 받은 상인만큼 그 기쁨을 수용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냐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그가 기부한 상금은 한여름의 무더움을 식히는 얼음 생수가 돼 대전교도소의 모든 수용자에게 고루 돌아갔다.

“수용자들을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해 보지 않겠니?”

교정공무원으로 일하던 고등학교 1년 선배의 물음은 전궁수 회장을 운명처럼 수용자 교정교화의 길로 이끌었다. 그가 1996년 대전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수용자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펼친 교정교화 활동은 그야말로 다채롭다. 불우한 수용자들의 보관금을 지원하는가 하면, 책상·의자·선풍기·운동기구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꾸준히 기증하고 폭염이 찾아오면 어김없이 얼음생수를 전달했다. 웨딩홀 대표라는 자신의 업을 십분 활용해 출소자 합동결혼식을 꾸준히 개최하기도 했다. “출소 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출소자들이 꽤 있더군요. 이런 사람들에게 잊지 못할 평생의 추억을 전하고 싶었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와 협력해 제가 운영하는 웨딩홀에서 합동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예식장, 식사, 드레스, 사진 등 행사 비용 일체를 지원했고요. 11년 동안 100쌍 넘는 부부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며 ‘결혼식을 열어 주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수용자, 출소자의 행복과 저의 뿌듯함이 깊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던 순간이죠.”

진정한 교정교화를 향한 굳은 의지

말 그대로 수용자의 눈앞을 환히 밝혀 준 일도 있었다. 지난 2003년 어느 날, 모범적으로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한 수용자가 수술비용이 없어 자칫 실명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 왔다. 전궁수 회장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주하게 움직였다. 자신이 속해 있는 라이온스클럽과 연계, 수술비를 마련해 신속하게 지원한 것이다. 덕분에 그 수용자는 눈이 보이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어두웠던 과거를 뉘우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수용자의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교훈을 선사합니다. 더군다나 수용자들은 출소 후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사회의 일원이에요. 그렇기에 이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수술비를 지원했을 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궁수 회장의 겸손하고도 따뜻한 교정교화 활동은 수용자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의 보살핌을 받으며 검정고시와 대입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한 수용자는 만기 출소 후 지인을 통해 연락을 해 왔다. 전궁수 회장은 그가 일하는 곳까지 직접 가서 성실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2002년 전궁수 회장이 새마을문고 대전광역시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을 때 그의 주선으로 독후감 발표대회에 참여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또 다른 수용자는 출소 후 가족과 함께 여러 차례 그를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궁수 회장의 진심이 만들어낸 행복한 풍경이다.

지난 2020년 초 갑작스럽게 터진 코로나19 사태는 교정협의회장인 그에게 커다란 아쉬움으로 다가왔지만 다행히 대전교도소와 교정위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한 차례 교정협의회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지난 2년간 수그러들었던 교정협의회를 부흥시켜서 더욱 왕성한 교정교화 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소임이라고 전궁수 회장은 굳게 믿고 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더 많은 수용자를 양지로 이끌겠다는 그의 투철한 교정교화 의지에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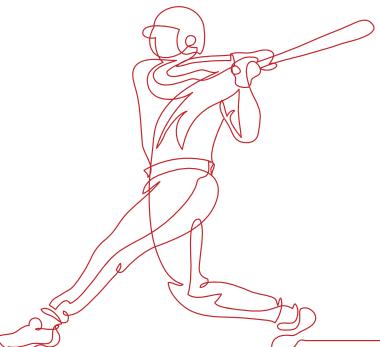
질풍처럼 빠르게 치고 던져라!

여주교도소 야구동호회 질풍크로우즈



야구 유니폼을 입고 글러브와 배트를 드니 제법 선수 같다.
신체 단련과 함께 동료들과의 팀워크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야구.
남다른 야구 사랑에 야구 실력을 좀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을 안고
여주교도소 야구동호회 질풍크로우즈의 두 멤버 노진석 교사와
하승환 교사가 오늘 하루 야구 레슨을 받았다.

글 정리희 사진 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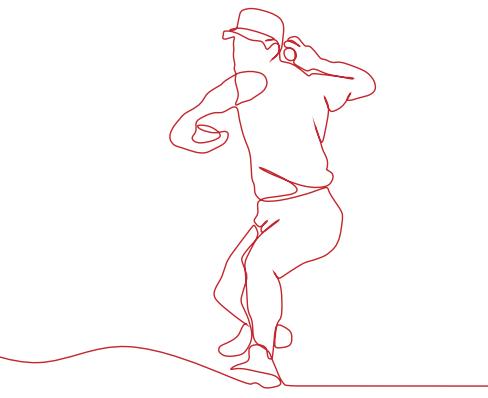
멈출 수 없는 야구를 향한 열정

어떤 이들은 야구를 ‘보면서’ 즐기고, 또 다른 이들은 야구를 ‘하면서’ 흥미를 느낀다. 좋아하는 야구팀을 응원하는 즐거움 이상으로 직접 그라운드를 뛰는 재미가 크다는 노진석 교사와 하승환 교사. 그 마음이 두 사람을 야구동호회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몸담은 야구팀은 다름 아닌 여주교도소 야구동호회 질풍크로우즈. 20여 명이 활동하는 동호회에서 노진석 교사는 감독 겸 투수를, 하승환 교사는 중심타자로 맡고 있다.

“여주교도소 야구동호회는 2009년 5월 1일에 질풍노도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3~4년 전에 팀의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질풍크로우즈로 동호회 명칭을 바꿨습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야구 실력을 키워가고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지요.”

노진석 교사가 질풍크로우즈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팀명에 붙은 ‘크로우즈(crows)’는 익히 알다시피 영어로 ‘까마귀’를 뜻하는 말. 평소 검은색 제복을 입고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에게 검정빛깔의 까마귀는 익숙한 새다. 노진석 교사는 2014년에 입사했을 때부터 야구동호회에 참여했고, 하승환 교사는 2016년에 입사해 이듬해인 2017년부터 야구동호회 활동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무척 좋아했어요. 학창 시절에 육상부와 축구부 활동도 했고, 태권도와 유도, 합기도, 특공무술 등 다양한 무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구를 한번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야구동호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승환 교사의 말이다. ‘야구하는 재미’는 해본 사람만이 안다. 뉘시 애호가들이 물고기를 뉘을 때 느끼는 손맛 같은 느낌이 야구에도 있다는 것. 글러브로 제대로 공이 들어올 때도 그렇지만, 배트에 공이 제대로 맞을 때도 느껴지는 짜릿함이 있다. 뛰고 움직이며 얻는 운동 효과도 있지만, 공을 던지고 치는 과정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스포츠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숨은 실력을 끄집어낼 특별한 야구 레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한동안 중단됐던 사회인 야구 리그도 올해부터 재개됐다. 좀 더 안전한 방역을 위해 질풍크로우즈는 아직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기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그러자면 새로운 회원들도 모집해야 하고, 기존 회원의 실력도 관리해야 한다. 동료의 추천으로 <교정>에 출연하면서 야구 레슨까지 받게 돼 무척 반가웠다는 두 사람. 그래서 여주에서 출발해 야구교실이 있는 수원까지 한 달음에 달려왔다.

“코로나19로 모든 리그가 중단되면서 최근 3년 동안 단체 훈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 쌓아온 실력이 퇴화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컸어요. 개인적으로도 평소 자세를 점검하면서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싶은 바람도 있었거든요. 사실 사회인 야구 동호회에서는 그런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야구 사랑은 남다르다. 코로나19로 사회인 야구리그에 출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개인 연습을 틈틈이 하며 야구에 대한 감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 하지만 프로 선수들의 동영상을 아무리 봐도 혼자만의 노력으로 자세를 교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게 가볍게 몸을 풀고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한 두 사람. 짧은 시간 안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투구와 타격에 집중해서 레슨을 받기로 한다.

첫 번째 레슨은 투구자세를 교정하는 데 집중됐다. 투구자세를 바로 잡으면 원하는 곳에 공을 제대로 보낼 수 있고, 잘못된 투구 습관이 드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제구력 관리는 사회인 야구 동호회원들에게는 더욱더 간절했던 부분이다. 팔을 들어 올리는 것부터 움직이는 범위, 손 모양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나가는 두 사람. 연습으로 던지는 공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제구력이 눈에 띄게 나아진다. 미처 몰랐던 부분을 몸으로 느끼고 깨달으면서 조금씩 자신감도 더해진다.

“평소 공을 던지다 보면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경향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이 좌우로 빠질 때도 간간이 있었고요. 그런데 공이 좌우로 빠지면 자칫 상대 팀 선수가 맞을 수도 있어요. 프로리그에서야 공이 몸에 맞아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취미로 하는 사회인 야구는 무조건 부상 없이 즐기는 게 우선이거든요. 강사님이 상체를 좀 더 숙이라고 조언해주셨는데 좀 더 연습하면 제구가 나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듭니다.”

“함께 호흡하며 나누는 특별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동료애도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노진석 교사



하승환 교사

함께해서 더 좋은 스포츠, 야구

이어 두 사람은 차례로 타격 레슨에 들어갔다. 실제로 공을 쳐보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조금씩 타격감을 높여나간다. 배트에 닿는 공의 느낌은 쳐본 사람만이 아는 것. 빠르게 날아오는 공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사회인 야구에서 대다수 사람들은 당겨치는 습관이 있어요. 어깨가 일찍 열리고 세게 치려고 하다 보니 스윙도 서두르게 되고요. 항상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의 눈으로 교정을 받으니 좀 더 나아진 기분입니다.”

실력을 끌어올릴 비법을 전수 받았으니 앞으로는 이날 배운 것을 반복해서 훈련해 실전에서 활용해보는 일만 남았다. 더불어 두 사람은 야구하는 즐거움을 더 많은 이와 공유하고 싶은 바람도 털어놓는다. “야구는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팀워크가 잘 맞아야 경기력이 올라가는 스포츠입니다. 함께 호흡하며 나누는 특별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공유하면서 동료애도 더욱더 돈독해졌습니다.”

언젠가 열린 야구경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11회까지 이어진 승부치기를 통해 극적인 승리를 일군 에피소드도 여전히 기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서울지방교정청 야구대회에서 3위를 하고 전국대회에 출전했던 몇 해 전의 추억을 다시금 재현해보고 싶은 두 사람. 세상에 수많은 강팀이 있어도 이들에게 제일 소중한 야구팀은 아무래도 질풍크로우즈다. 이날의 특별한 강습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릴 질풍크로우즈의 활약을 기대한다.

<취미의 공유> 코너 참여 신청하기!!

<취미의 공유>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교정공무원 동호회를 소개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 공유하고 싶은 본인의 취미 활동을 홍보해 일상에 새로운 활기를 되찾아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으로 신청
(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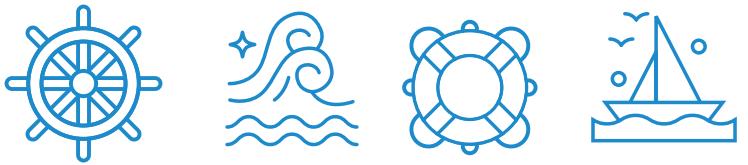
푸른 바다에 띄운 요트, 그리고 힐링

서울남부교도소 교위 안진수 & 인천요트아카데미 대표 류해석



바다 한가운데 띄운 요트,
그 위에서 누리는 해방감과 힐링.
서울남부교도소 안진수 교위가
용기 내어 요트 조종에 한 발 다가섰다.
전(前) 국가대표 강사와 함께 들어선
요트의 세상은 의외로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자리해 있었다.

글 강진우 사진 이정도



새로운 세계로의 첫 항해

안진수 교위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바다가 좋았다. 끝을 모르게 펼쳐져 있는 수평선, 잔잔함과 사나움을 번갈아 보여주는 파도, 그 위에 지붕처럼 얹혀 있는 하늘은 그를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바다 생활을 해 보고 싶어 해군에 지원했지만 기대와 달리 지상 근무 보직을 맡게 되면서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그때 결심했다. 언젠가는 배, 특히 바닷바람으로 나아가는 요트를 조종해 보겠노라고.

“교정공무원 임용 후 수상스키, 서핑 등을 하며 지내던 와중에 PD 출신 김승진 선장의 요트 세계일주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보는 것 만으로도 온몸이 근질거리더군요. 하지만 요트와 관련된 활동은 비쌀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요트 전문가와 함께 조종을 체험하며 그간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안진수 교위가 찾은 곳은 인천 영종도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완산마리나의 인천요트아카데미다. 아카데미를 이끄는 류해석 대표는 지난해까지 요트 국가 대표를 지냈을 정도로 출중한 실력을 갖춘 그야말로 요트 전문가다. 안 교위가 류 대표에게 “저를 포함한 일반 사람들은 요트 조종에 대해 비싸고 호화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하자 류 대표가 빙그레 웃으며 안 교위를 안심시켰다.

“오늘 저와 시간을 보내신 뒤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요트를 타려면 반드시 배가 있어야 했던 과거에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지만, 전국의 마리나를 중심으로 요트아카데미와 동호회가 형성된 지금은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어렵지 않게 요트 조종을 즐기실 수 있어요.”

높아진 접근성을 증명이라도 하듯, 류해석 대표는 요트가 항구를 떠나자마자 안진수 교위에게 조타를 맡겼다. 덕분에 안 교위는 40분가량 요트를 조종하며 바다를 누릴 수 있었다.



이것이 궁금하다!

Q&A



Q 대표님이 지금껏 느끼신 요트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A 바다 그 자체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일반 관광선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요트에서 바람을 타며 느끼는 바다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엔진을 이용해 움직이는 동력선과 달리 인위적인 진동이나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요트의 매력입니다. 한마디로 자연과 가장 가까운 배인 셈이죠.

Q 요트면허 취득 시 거쳐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보통 5일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실기와 이론을 함께 배우며 요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요트 개요, 요트의 구성 및 접안과 이안, 요트 조종술, 관계법령, 항해술, 수상 상식, 구급 및 응급조치 등 요트 조종에 필요한 것들을 두루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트 조종술 평가까지 마치면 수료증과 요트 면허가 나옵니다.

Q 요트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나요?

A 요트에 입문하시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요트는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동력 기관을 이용하는 배와 바람과 조류를 이용하는 요트는 움직이는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혼히들 알고 계시는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1·2급 대신 '요트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국의 요트면제교육장에서 5일 정도 연수를 마치시면 취득하실 수 있고 비용은 70만 원 내외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Q 요트면허 취득 후 실제로 요트를 조종하려면 배를 구입해야 하나요?

A 그러셔도 되지만 요트 가격이 상당하고 마리나 계류비도 한 해에 1,000만 원에 달해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전국의 마리나에 있는 요트아카데미 연간 멤버십이나 동호회에 가입해 요트 조종을 즐기죠.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반적인 취미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만 부담하시면 요트 교육과 실전 항해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Q 혹시 위험하지는 않나요?

A 사실 요트는 가장 안전한 배에 속합니다. 항구 접안과 이안에만 신경 써 주시면 탁 트인 바다를 안전하게 만끽하실 수 있고요. 각 마리나의 공식 요트 아카데미를 이용하시면 마리나의 구조선이 상시 대기하고 있어 만에 하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원거리 항해 시에는 해양경찰에 경로를 신고하기에 더욱 안전하죠. 특히 요트는 배 아래쪽에 요트 무게의 1/3에 달하는 무게 중심추인 벨러스트가 달려 있어서 전복될 걱정이 없는 안전한 해양 레포츠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
말씀을 듣고 요트를 직접 체험해 보니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레포츠여서 내심 놀랐습니다.
배를 구입하지 않고도 요트를 즐길 방법이 있어 더욱 좋네요.
조만간 요트면허를 따고 연간 회원권을 끊어서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서의 여유를 마음껏 즐길 생각입니다.”

안전수 교워



“
예상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진짜 요트에 관심이 있는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즐겁게 요트에 대해 수다를 나눴네요.
해군 출신이셔서 그런지 요트 조종 요령도 금방 익히시더군요.
조만간 바다에서 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류해석 대표

<전문가에게 묻다> 코너 참여 신청하기!

<전문가에게 묻다>는 교정공무원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평소 고민이나 궁금했던 사항을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코너입니다. 은퇴 설계, 재테크, 자녀 교육, 취미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참여 신청 방법 correct2015@naver.com
으로 신청(소속 기관, 이름, 직급, 연락처 필수 기재)





여름이니까 패션도 휴가처럼!

대충 걸쳐 입어도 자기만의 느낌이 묻어나는 타고난 센스왕도 전문가의 손길은 궁금했다.

바야흐로 휴가철, 강렬한 햇살에 지지 않을 색다른 패션을 상상하며 충청남도 홍성에서 서울로 향했다.

그렇게 지금, 이대섭 교사의 특별한 변신이 시작된다.

글 정라희 사진 홍승진 스타일링 박송이 헤어&메이크업 원지혜



“
패션은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에서는 트는 복장으로 출근하기 어렵지만 가끔 연주회를 하거나 휴가를 갈 때는 그날 분위기에 맞게 입으려고 신경 쓰는 편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에 더해진 이색 이벤트

화려하지는 않아도 자기만의 색깔은 있다. 평소에도 아내가 골라온 옷을 색깔 맞춰 무난하게 소화하는 편이었다. 하지만 우연히 찾아온 변신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기는 아쉬웠다. “수원에 있다가 홍성에 온 지 이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대도시 생활에 익숙했는데, 홍성에 와서 자연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개인적인 추억을 쌓으면서 <교정> 지면을 통해 홍성교도소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정우성 주임의 추천을 받아 ‘나도 패션왕’ 주인공이 됐다는 이대섭 교사. 덕분에 오랜만에 시외버스를 타고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서울을 찾았다. 단독주택을 개조한 스튜디오 마당은 이미 파릇파릇한 신록이 여름 기운을 무성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수도권과 비교하면 홍성이 외곽에 있는 편이라 교도소 주변도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돼 있어요. 늦은 밤 근무를 하다 보면 도시에서는 듣기 어려운 자연의 살아있는 소리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어떤 동물의 소리일까 궁금해하는 저에게 동료들이 설명해주고는 했는데, 이제는 소리만 들어도 고라니인지 꿩인지 분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덧 홍성 사람이 다 됐죠?”

홍성교도소 홍보를 자처해서 행동으로 옮길 만큼 몇 년 사이 홍성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다고 말하는 이대섭 교사. 실제로 그는 홍성으로 근무처를 옮기면서 오래 전 상상했던 귀농의 꿈을 일찌감치 이뤘다. 가족들이 먹을 채소도 손수 키우다 보니 태고난 하얀 피부도 이제는 제법 햇볕에 그을린 흔적이 난다. 이날의 변신 콘셉트는 ‘휴가철 하와이안&댄디룩’. 여름과 잘 어울리는 색감의 옷을 보니 어느새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이다.

“저는 패션은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에서는 트는 복장으로 출근하기 어렵지만 가끔 연주회를 하거나 휴가를 갈 때는 그날 분위기에 맞게 입으려고 신경 쓰는 편입니다.”

Change
your
Style

- 외모를 가꾸는 데 관심이 없어 축복받은 유전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교정인.
- 삶의 터닝포인트를 위해,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교정인.
- 멋지게 변신시켜 드리고, 월간 <교정>에 소개해 드립니다.
- correct2015@naver.com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교정공무원의 길

촬영을 앞두고 메이크업을 시작하니 새삼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언어 실력도 키우고 용돈도 벌 겸 현지 방송 프로그램에 외국인 패널로 출연한 경험이 있다는 이대섭 교사. 그렇게 쌓은 외국어 능력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든든한 힘이 됐다.

“대만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 일반 기업에 취업해 사회생활을 하다 예기치 않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동안 집에서 쉬던 중 우연히 법무부에서 교정공무원 중국어 특기자를 선발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면서도 제 개인의 생활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시험을 보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도 제 선택을 지지해줬습니다.”

이미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었을까. 연습 삼아 본 시험에서 서울청 2등으로 합격하며 그 길로 교정공무원이 됐다. 현재는 보안과에서 근무하며 순찰 및 접견 등 교정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청년 시절 교회에서 친구들을 하면서 기타를 연주했어요. 그때 청주여자교도소에 교화 공연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는 교도소에 처음 방문하는 거라 살짝 긴장했는데, 막상 공연을 시작하니 수용자들이 호응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도소에서 만난 교정공무원들도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그때 인상이 깊게 남아 있어 전직을 고민할 때 교정공무원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교정공무원의 길은 개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사람을 대하는 업무 특성상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동료들을 통해 자연스레 배우는 점도 많다. 오래 머물던 수원을 떠나

홍성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사람 좋은 동료들 덕에 외로울 틈 없이 홍성의 삶에 익숙해졌다.

“사람을 대하는 일 있어서 그런지 본받고 싶은 성품을 지닌 인간미 넘치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집에 동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자주 보냅니다. ‘사람이 좋다’는 생각을 넘어서 ‘멋지다’는 말이 나올 만큼 좋은 분들이에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의 행복

음악을 좋아하는 그가 홍성으로 가면서 홍성교도소에도 변화가 생겼다. 교도소 안에서 밴드를 결성한 것이다. 음악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인 동호회이기는 하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만큼은 끄로 못지 않다. 실제로 홍성군을 비롯해 인근 보령시에서도 연주 요청이 자주 들어온다.

“밴드 명칭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열여덟 명 안팎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밴드를 하니 저의 음악적 스펙트럼도 넓어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록과 블루스 계열의 음악을 좋아하지만 이제는 장르를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주회를 할 때도 트로트부터 라틴 음악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날 촬영에도 그는 자신의 애장품인 일렉트릭 기타를 가져왔다. 유명 기타리스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모델이기도 하다. 휴가철에 딱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고 기타를 드니, 마치 이곳이 어느 휴양지에 설치된 작은 무대인 것만 같다. 비록 취미로 하는 음악이지만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이와 소통하고 싶은 바람도 크다. 위문공연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홍성을 알리는 비공식 홍보대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이대섭 교사. 이 틈을 이용해 그는 마지막까지도 홍성 사랑을 잊지 않는다.

“홍성은 만해 한용운 선생의 고장이자 김좌진 장군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는 예산 덕산면은 윤봉길 의사의 고장이고요. 그래서 밴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뜻깊은 행사들에 더 자주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지금 하는 연주에 만족하지 않고 실력을 계속 키워가겠습니다.”

그것이
궁금
하다

휴가철에
듣기 좋은 음악은
무엇인가요?

“엘튼 존(Elton John)이 노래한 ‘크로커다일 록(Crocodile Rock)’을 추천합니다. 요즘처럼 더운 계절에는 강가에서 물과 어울려 움직이는 악어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함께 몸을 움직여봅시다!”



리넨 재킷 & 화이트 팬츠
한여름에도 댄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시원한 스카이블루 컬러 리넨 재킷. 이너와 팬츠는 화이트로 통일해 더욱 슬림해 보인다. 브라운 레더 스트랩샌들은 여름철 어디에나 잘 어울린다.

국립산림치유원을 다녀와서

-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체험 수기 -

글 서울남부구치소 교감 최지현

66

도시를 잠시 떠나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재미있는 체험을 하며 보냈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자연에서 잠시 쉬었다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99

바람 소리만 들어도 좋았던 힐링의 시간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업무에서 탈피해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경상북도 예천의 국립산림치유원 문필마을로 향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산과 들로 이어지는 숲의 나무들을 보며 마음의 긴장감을 잠재울 때쯤, 교육원에 도착했다. 그렇게 2박 3일의 교육이 시작됐다.

도착 후 교육생 생활수칙과 프로그램 설명 등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지고 오후에는 '문필 테크로드 숲을 거닐다'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산딸나무 앞에 멈춰 나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숲을 거닐며 쉼의 시간을 가졌다. 직선과 곡선으로 펼쳐지는 나무 계단을 하나씩 오르면서 올해 계획을 얼마나 실천했는지 생각해 보고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해 보며 다짐을 새로이 하는 시간을 가졌다.

눈앞에는 신록의 향기가 매아리치고 풀잎에서는 바람과 구름도 잠시 쉬어가는 것 같았다. 이름 모를 수종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나무에 걸려있는 바람소리만 들으며 걸어도 좋았다. 교육생들의 그림자를 따라가며 낙조를 바라보니 자연의 신비감에 감탄사가 연이어 나왔다.

한참을 걷다가 고사목을 봤다. 사실, 나는 고사목이 말라서 죽어버린 나무라 무시했었다. 그런데 죽어서도 이끼나 곤충의 먹이와 보금자리가 되고 크게는 생태계에도 도움을 준다는 강사의 말에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죽어서도 남아있는 것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고사목을 보며 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숲에서 미워 몇 잎을 뜯어 속소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어둠이 가을 단풍처럼 물들기 시작하는 저녁이 왔다. 산이 어둠을 물고 와 산의 고요를 파괴하고 별빛과 불빛의 조화로 문필지구는 조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첫날 저녁에는 전통주를 빚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산림치유 효과를 경험하다

이른 아침 빼꾸기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 소르르 부는 바람을 등에 지고 오솔길을 걸었다. 아침 안개를 신발에 담고 자연을 사색하며 걸었다. 신이 만든 자연에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나는 진솔한 삶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아침 고요를 집어삼키는 개 짖는 소리에도 산책의 발걸음은 계속됐다.

검게 익은 뽕나무의 오디를 보면서 걸었다. 덤불 속에 붉게 익은 산딸기 몇 개를 먹고 순간 동심으로 돌아갔다. 상쾌한 공기를 물통에 넣어 가지고 가고 싶을 정도였다. 새울음소리도 문필마을로 끌고 가고 싶었다. 숲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고독 속 행복지수는 숲속 창공으로 질주하는 것 같았다.

어떤 자료에서 산림치유의 효과에 대해 본 적이 있다. 숲은 도시보다 1~2% 더 많은 산소를 함유해 우리 몸의 신진 대사 및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녹색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며 산림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인간을 편안하게 한다.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등 산림은 인간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자연 속에서 느낀 벽찬 감동

이번 2박 3일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싱잉볼(노래하는 그릇) 명상의 시간'이다.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벽면에서 나오는 향기는 '힐링의 왕' 같았다. 명상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명상실의 높은 처마, 곡선과 타원형으로 연결되는 나이테와 나의 나이에 대한 무상함, 손가락의 융선 같은 벽면에서 느끼는 편안함, 노래하는 그릇에서 울려 퍼지는 반듯하고 소박하고 은은한 종소리와 같은 소리의 파동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것 같다.

깨끗하고 잘 정돈된 숙소에서 정갈한 음식을 먹고, 거실의 텔레비전 대신에 눈을 감으면 다가오는 자연의 녹색 향기는 기쁘고 가슴 벽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영원한 추억으로 남기고 싶은 교육 사진들을 공유해준 분들의 배려, 정말 친절했던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며 이번 교육을 알차게 준비해준 교정본부에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가을에는 가족과 함께 다시 한 번 방문을 해보고 싶다. 가을에는 산에 알밤과 송이밤도 소도록하게 떨어져 있을 것이고 톱니처럼 생긴 다래와 산머루도 우리 가족을 기다릴 것만 같다. 도시를 잠시 떠나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재미있는 체험을 하며 보냈던 시간을 잊지 못할 것이다. 자연에서 잠시 쉬었다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최선이 최고다 '대한민국 태권도 간판'

Legend



태권도 세계랭킹 1위,
국제대회 금메달 29개…
이대훈 선수가 현역 시절 세운 기록이다.
한 번 일등을 하더라도 지키기는
쉽지 않은 엘리트 스포츠의 세계에서,
한결같이 선두에 섰던 그는
보이지 않는 땀방울의 의미를 아는 이다.
그래서 현역에서 물러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도,
자신만이 아는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보낸다.

글 정라희 사진 이정도

대한민국 태권도 레전드

대한민국에서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만큼이나 국가대표 되기가 더 어렵다는 종목이 몇 있다. 태권도 역시 그 중 하나다. 더구나 태권도의 종주국은 한국. 이 치열한 영역에서 이대훈 선수는 12년 동안 국가대표의 자리를 지키며 세계무대를 석권했다. 고등학생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대표 1진에 선발돼 화제를 모았고 그 기대에 걸맞게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첫 출전에 금메달을 따며 주목을 받았다. 아시안게임 3연패를 비롯해 세계선수권과 그랑프리시리즈에서 해마다 메달을 휩쓸 것은 물론, 올림픽에서도 두 차례 메달을 목에 걸었다. 덕분에 그는 '태권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됐다.

다섯 살 때 태권도를 하는 아버지와 형을 따라 태권도에 입문한 이후로 태권도라는 한길만 걸어온 그가 지난 2021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스피드와 체력이 뛰어난 그가 한 번 더 올림픽에 도전하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했지만 그는 '박수 칠 때 떠나는' 선택을 내렸다. 현역 선수로서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이제까지 세운 기록들이 그를 계속해서 '대한민국 태권도 레전드'로 기억하게 한다.

태권도 대회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그는 태권도와 함께 지낸다. 선수 시절부터 간간이 얼굴을 비추던 방송 활동도 은퇴 이후로는 좀 더 마음 편히 임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현재를 이룬 바탕이 태권도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

“은퇴 이후 방송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태권도 선수였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공부 역시 태권도를 바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태권도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수로서 현역에서는 물러났으나 여전히 그의 정체성은 태권도에 있다. 방송활동을 하면서 축구를 하고 있어도 결국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된 바탕은 태권도에 있음을 잊지 않는다.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그는 요즘 한창 논문을 쓰는 데 시간을 쏟고 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선수로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바를 이론으로 논여내고자 한다. 아직 먼 길을 가야 하지만 바쁜 일과 중에도 공부에만 몇 시간을 쏟으며 논문의 방향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대훈 선수



“최선을 다해봐야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알면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주어진 기회 앞의 최선

요즘도 자주 뛰고 달리며 체력 관리를 한다. 최근 미디어에서 그의 모습을 본 이들은 그를 두고 ‘축구 잘하는 태권도 선수’로 기억하기도 한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에 출연하면서 남다른 축구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선수 생활을 하던 중에 잠시 출연했던 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경기력을 보여준 덕분에 고정멤버로 발탁되기도 했다.

“예전부터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 잠시 축구를 배워보기도 했고. 예전에는 좋아하는 취미로 축구를 했으면 요즘은 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매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매번 새롭게 주어지는 과제들도 있고, 축구는 훈련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춰진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뭉쳐야 찬다 2>에서도 그의 활약은 눈에 띤다. 어떤 이들은 그를 두고 ‘사기 캐릭터’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면서도 지치지 않는 체력은 물론이고 실제 경기에서 찬

스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남달랐던 까닭이다. 덕분에 요즘 그는 축구를 더 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비록 축구선수는 아니지만 ‘축구’를 매개체로 다른 선수들과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태권도가 제일 잘하기 까다로운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해보니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팀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던 선수들과 함께하며 여전히 깨닫는 바도 많다. 운동 능력만이 아니라 사소한 습관이나 행동들을 보면 왜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지 느낀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팀의 전력에 보탬이 될 방법을 스스로 찾게 된다. 최선을 다해야 최고가 된다는 마음가짐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도 이어지고 있다.

꾸준함이 힘이다

태권도 유망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던 시절, 그의 포부는 ‘태권도 하면 기억나는 선수’였다. 당시에는 선수로서 밀레봄직한 포부였을지 모른다. 누군가는 수려한 외모나 빠른 발차기로 그를 기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실력으로 말했다. 현역 선수로 활동하는 동안 꾸준히 태극마크를 달고, 숱한 대회의 시상대에 오르며 선수로서 할 일을 묵묵하게 해냈다.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 아버지를 비롯한 지도자 선생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성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지는 자신만 알 수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면 무리해서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만 적당히 하게 되면 실력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봐야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을 알면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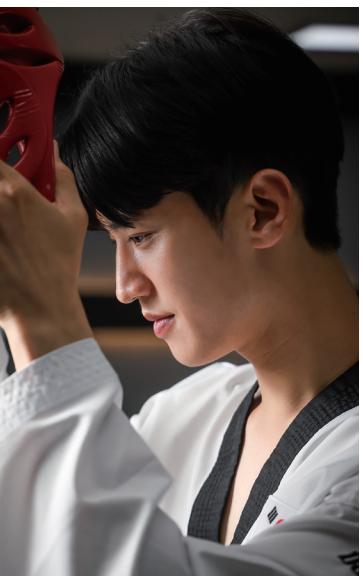


‘성실해야 성장한다’는 생각은 경기장을 벗어난 지금도 변함이 없다. 논문을 쓰기 위해 홀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도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집중하려 한다. 적어도 성실하기로 마음먹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기에.

“국가대표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만큼은 해야 한다’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태권도를 더욱 널리 알리고 싶은 바람도 크다. 그래서 선수 시절의 경험을 연구에 담아내고, 기회가 있을 때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위원에도 도전해보고자 한다. 이처럼 곁으로 드러나는 화려함 뒤에 숨은 노력의 가치를 아는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교정공무원들에게도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 길을 가고 계신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교정공무원으로서 하고 계신 일들을 제가 전해 듣고 싶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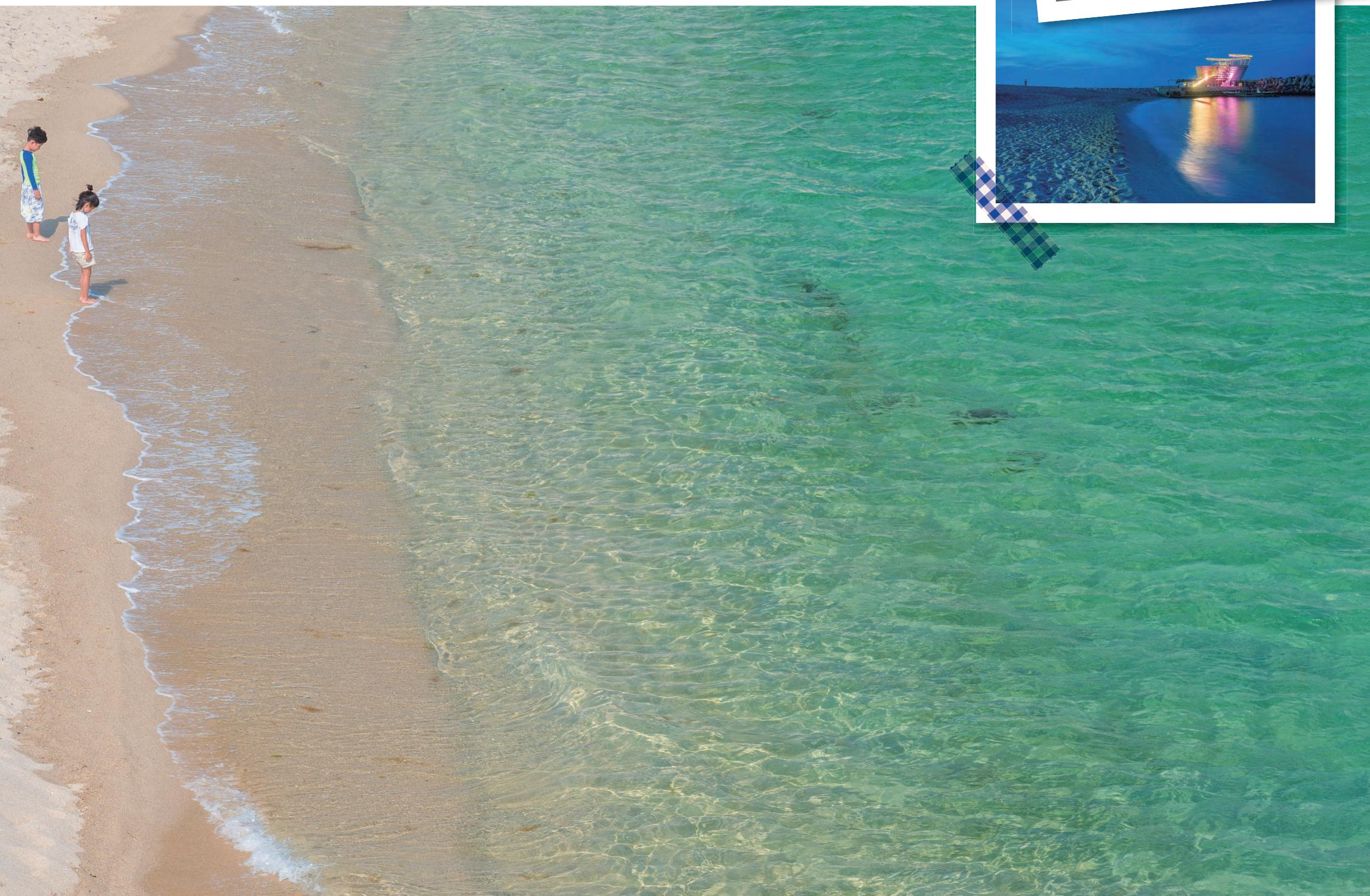


Taekwondo

발 적시기 좋은 여행지 여름의 온도는 바다°C

노래하듯 철썩대는 파도와 발가락을 간질이는 모래, 바다에 여름이 활짝 피었다. 때때로 그 바다는 갯벌이거나 윤슬 그득한 별 밭이며, 고래처럼 불쑥 솟는 바다 가운데 새하얀 모래섬이기도 하다. 종아리 반쯤을 파도에 걸치고 앉아 바다와 놀기 좋은 계절, 여름. 여름을 조금 더 한적하게,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바다 여행지 세 곳을 소개한다.

글. 사진 이시목 여행 작가



명소 옆 숨은 1인치의 바다 강원 강릉 순구해변

'바다는 가끔/내가 좋아하는/삼촌처럼 곁에 있다/나의 이야기 잘 들어 주다가도/어느 순간 내가/힘들다고 하소연하면/"엄살은 무슨? 복에 겨운 투정이야"/하고 못 들은 척한다'(이해인 시인의 '바다는 나에게' 중에서)

순구해변을 처음 봤을 때였다. 북적대는 경포해변 옆에서도 순구은 소란하지 않아 좋았다. 하루 종일을 물가에 주저앉아 있어도 귀가 맑았다고나 할까. 그만큼 사람 소리는 멀고 파도 소리는 가까웠다. 마치 이해인 수녀가 말한 삼촌처럼 살가워, 혼자 가만히 발 적시며 하소연하기 좋았다. 그게 4~5년 전이다. 물론 지금은 이곳에도 방문객이 늘었다. 한여름이면 600여 m 길이의 자그마한 해변에서 사람 소리가 난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여름이 무르익어 사람 제법 있는 날에도 이곳에선 결코 사람이 바다를 가리는 일 따윈 없다. 경포해변에 비하면 아직까지 한적해 조용히 머물다 가기 좋은 셈이다. 순구은 물빛으로도 맑게 빛난다. 햇빛 들판 빨아들인 날의 순구이라면 더욱 찬란하다. 바다 조망 포인트는 순구해변과 사근진해변 사이에 있는 '해중공원 전망대'. 이곳에 올라서면 작지만 탁 트인 순구해변과 명계바위로 아기자기한 사근진해변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몽글몽글 보들보들한 초당순두부



강릉에선 초당순두부가 '먹방' 1순위다. 초당순두부는 강릉 초당동의 두부촌에서 만들어 내는 순두부를 말한다. 여기서 '초당'은 조선시대 삼척부사를 지낸 허업의 호에서 따온 이름. 허업은 허균과 허난설헌의 아버지로 유명하다. 대체로 응고제 대신 바닷물로 두부를 만들어 식감이 푸딩처럼 몽글몽글 보들보들한 것이 특징이며 현재 20여 곳의 순두부집이 성업 중이다.

붐벼도 재밌다, 격렬하게 재밌다

충남 보령머드축제

미끄럼틀을 타고 쏜살같이 내려와 진흙탕에 풍당 빠진다. 순간, 시커먼 머드가 주위로 ‘파바방~’ 꽃술처럼 튕난다. 한바탕 왁자한 웃음소리가 바다로 번진다. 미끌미끌 보드라운 진흙마당에선 첨벙첨벙 공놀이도 한창이다. 강한 햇발질에 ‘쭈욱’ 미끄러지는 사람도, 비틀대며 공을 몰고 가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모두가 신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진흙이 가득 담긴 대형 머드탕. 이곳에선 몸이 깨끗하면 오히려 이상하다. 머드가 눈, 코, 입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시커멓게 묻어야 축제를 제대로 즐겼다는 증거다. 막 묻혀도 괜찮을까 망설여진다면? 걱정할 것 없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머드는 보령 해안에서 채취해 정제한 것이다. 천연 미네랄 성분을 듬뿍 함유해 피부에 활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령시에 따르면 혈액 순환 효과도 있다고 한다. 진흙에서 신나게 놀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머드축제가 열리는 대천해수욕장은 바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곳이다. 무엇보다 육지에서 바다 멀리까지 걸어가도 종아리까지 파도가 출렁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바다를 즐기기 좋다. 스카이바이크와 카트, 짚트랙 등 익사이팅 체험시설이 즐비한 것도 매력이다. 올해 축제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보령 해양머드락회’라는 이름으로 열린다.



소름 둘도록 서늘한 보령냉풍욕장



이름 그대로 차가운 ‘바람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무연탄 생산단지가 있던 폐광을 이용해 만든 곳이라 30°C 가 넘는 한여름에도 폐광구 안쪽에서 뱃속까지 시원해지는 찬바람이 쌩쌩 분다. 냉풍욕장의 연중 내부 온도는 10~15°C. 긴 팔 옷을 입어도 오싹한 한기가 느껴질 정도의 온도이니 입장 시 긴팔 옷을 꼭 챙기자. 올해 개장은 8월 19일까지며 입장료는 무료다.



바다 가운데서 고래의 등을 타고 인천 옹진 대이작도 풀등

언젠가 누군가 ‘풀등을 걷고 싶다’ 내뱉으며 살던 때가 있었노라고 백했다. 부지불식간에 땅愀질처럼 튀어나오는 ‘풀등’에 늘 대이작도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그에게 풀등은 바다사막이었으며, 밀물 때마다 솟는 한 마리의 고래였다고 한다. 대이작도는 그런 풀등을 볼 수 있고 배를 타고 나가 직접 밟아볼 수도 있는 섬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사리 때는 사승봉도 근처에서 소이작도 근처까지 무려 5km에 이르는 모래섬이 바다 위로 불쑥 드러나 고래 같아지기도 한다.

거기, 풀등 한가운데 처음 섰던 날을 기억한다. 바닥은 온통 물결무늬로 가득 차 신비로웠으며 흰 포말로 물러나는 썰물이 사방에서 출렁대 황홀했다. 밤사이 고래의 등을 타고 심해를 나는 꿈을 꾸지는 않을까 싶기도 했었다. 풀등 행(行) 탐방선은 작은 풀안해수욕장에서 사전 예약 후 허가된 보트를 타고 갈 수 있고, 썰물 때만 출입이 가능하다.

풀등만큼 즐기기 좋은 바다는 또 있다. 풀등 탐방선 매표소가 있는 작은 풀안해수욕장이다. 대이작도 유일의 캠핑장이기도 한 이곳은 큰 풀안해수욕장까지 걸기 좋은 해안산책로가 이어지는 곳. 이 길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령 암석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전망도 노을도 멋진 부아산전망대



부아산(159m)은 소문난 ‘풀등 조망대’다. 풀등뿐 아니라 대이작도 일대 바다 풍광이 한눈에 들어오는 천혜의 바다 전망대다.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사이 어항이 빛내는 ‘하트’ 모양 바다도 이곳에서 볼 수 있고, 해 뜰 녘, 해 질 녘 노을도 이곳에서 볼 때 가장 찬란하다. 작은 풀안해수욕장에서 정상까지는 도보 50여 분 거리. 부아산의 8분 능선까지 차로 올라 도보 15분이면 정상에 닿는다.

칸 영화제가 발견한 한국영화, 그 다국적 협업의 성과

칸 영화제 '헤어질 결심', '브로커' 수상의 의미

이번 2022 칸 영화제에서 경쟁부문에 초청된

한국 영화 두 편이 모두 상을 받았다.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가 그것이다.

또한 비경쟁부문에 초청된

이정재 감독의 첫 연출작 <헌트>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글 정덕현 문화평론가



© CJ ENM

한국영화에 쏟아진 칸 영화제의 관심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가 각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다. 이미 칸 영화제에서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받으며 주목 받았던 박찬욱 감독은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았고 이번에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그만큼 이전부터 칸의 총애를 받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어 박찬욱 감독의 수상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오히려 <헤어질 결심>이 황금종려상이 아닌 감독상을 받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외신들이 쏟아질 정도였다.

산 정상에서 변사사건을 수사하는 형사 해준(박해일 분)이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 분)에게 '의심과 관심'을 동시에 느끼는 과정을 담은 이 영화는 로맨스 멜로물로 고전 형사물을 가져와 그 안에 드라마적 기법으로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러브스토리를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의 영화평론가 피터 브래드쇼는 이 작품을 '마치 히치콕 영화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만든 히치콕 스타일 영화 같다'고 표현했는데, 멜로물에 이런 평가가 나온 건 박찬욱 감독 특유의 장르물을 능숙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이 작품에 잘 담겨져 있어서다.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겨준 <브로커>는 어느 날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몰래 버렸다 다시 찾으리온 엄마 소영(이지은 분), 그 아기를 새 부모를 만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팔려는 상현(송강호 분)과 동수(강동원 분)가 함께 여정을 떠나며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브로커>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일종의 '인신매매 범'일 수 있는 이들이지만 여정을 함께 하면서 아기를 중심으로 마치 가족 같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서로를 위로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렸다. 어찌 보면 범죄자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나 인간적이고 따뜻한 인물인 상현이 사실상 이 영화의 주제이고, 그걸 복합적인 심리표현으로 담아낸 송강호의 연기가 주목된 작품이다. 이미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 황금종려상을 받을 때 복수 수상이 불가한 이유 때문에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이번 수상에도 더해

졌을 거라는 해석이 나올 정도로 송강호의 연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황이 됐다. 한편 비경쟁부문으로 초청된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인 <헌트> 역시 칸에서 화제가 됐다. <헌트>는 조직 내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기 위해 서로를 의심하는 안기부 요원 평호(이정재 분)와 정도(정우성 분)가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라는 거대한 사건과 직면하며 펼쳐지는 첨보 액션물이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배우가 된 이정재의 첫 연출작으로 관심을 모았다.

다국적 콘텐츠 시대, 한국영화의 달라진 위상

이미 칸 영화제는 한국영화가 가진 우수성을 여러 수상작들을 통해 드러낸 바 있다. 2002년 <취화선>이 감독상을 받았고, 그 후에도 <올드보이>(심사위원 대상), <밀양>(여우주연상), <박쥐>(심사위원상), <시>(각본상), <기생충>(황금종려상)에게 상을 줬다. 그래서 이번 박찬욱 감독의 감독상이나 송강호의 남우주연상은 이런 일련의 성과들이 축적되며 쌓인 한국영화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수상작에는 이러한 위상만큼 하나의 도드라지는 특징이 엿보인다. 그것은 '다국적' 영화라는 점이다. <헤어질 결심>은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작품이지만 중국배우 텡웨이가 주연으로 연기했고, <브로커>는 송강호를 비롯해 강동원, 배두나, 이지은이 열연한 작품이지만 국제적인 명성을 가진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했다. 물론 두 작품 모두 한국에서 제작한 한국영화지만 감독이나 연기 부문에서 이제는 글로벌 협업이 일상적인 일이 됐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이번 칸 영화제에는 다국적 영화가 다수 등장했다. 비경쟁 부문에 초청된 <올 더 피플 아일 네버 비>에서는 김선영, 오광록이 주연을 맡았지만 캄보디아와 프랑스를 오가며 활동하는 데비 슈 감독이 연출한 다국적 영화다. 또 다르게 형제 감독의 <토리와 루키>나 알리 아바시 감독의 <성스러운 거미>,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미래의 범죄>, 황금종려상을 받은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 같은 작품들 모두 감독, 배우, 프로듀서 등에 여러 국가가 참여했다. 영화계에 다국적 협업의 흐름은 이미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노마드랜드>나 윤여정이 여우조연상을 받은 <미나리>를 통해서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시장이 이미 글로벌화 됐기에 제작 자체가 어느 로컬에 한정되지 않는 글로벌을 지향하게 됐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동시에 담아내거나 제작에 있어서 협업을 하는 전 해당 국가들의 대중들을 끌어들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지향의 색깔을 내는 방법이기도 하다. <미나리>나 Apple TV+<파친코>처럼 여러 국적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디아스포라(특정 민족이 자의 타의로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집단을 형성해 살아가는 것)'가 이런 변화된 환경 속에서 주요 콘텐츠 소재로 떠오른 건 그래서다.

중요한 건 이처럼 '글로벌 협업'으로 다국적 콘텐츠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현재 K-콘텐츠가 특히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다. 반도 국가의 특성이면서 한국전쟁 이후 분단된 상황에서 서구와 전통을 빠른 속도로 결합해온 우리 문화의 특징들이 글로벌 협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힘으로 작용되고 있다. 서구에서 배운 장르라는 전 세계 공통의 영상문법에 능수능란하면서도 한국 고유의 로컬 색깔을 분명히 녹여내 차별적이고 독특한 작품. 이것이 다국적 콘텐츠 시대에 한국영화가 가진 세계적인 위상의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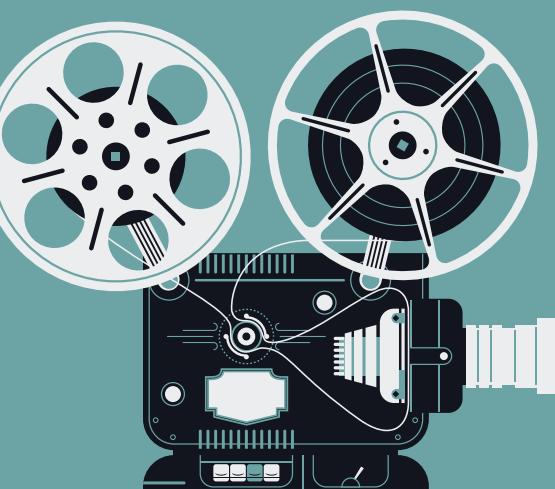
© CJ ENM



©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 판씨네마



몸과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삼계탕

대표적인 복달임 음식 삼계탕(蔴鷄湯)의 계절이 왔다.

든든하고 소화도 잘 되는 닭 국물 한 사발로 무더위를 이겨내 보자.

글.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장



복달임 메뉴 타이틀 독주

선조들은 몸을 보할라치면 보통 개나 닭을 먹었다. 전형적인 농경 국가인 소나 돼지는 귀하고 비쌌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넉넉하지 못해 굽거나 튀기지는 못했다. 물에 삶아 익은 고기를 먹고 남은 국물을 마셨다. 이렇게 하면 구이에 비해 보다 많은 이들이 고기 국물을 마실 수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2,000만 명이 넘어가는 지금 개를 식용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하여 닭, 그중에서도 삼계탕이 '복달임 메뉴' 타이틀을 독주하고 있다. 매년 600억 마리 이상이 도축되는, 인류가 가장 많이 기르고 식재료로 사용한 닭은 인간에게 일상에서 쉽사리 접할 수 있는 맛과 건강을 주고 있다. 냄새가 쫓다는 이도 있지만 닭 국물은 맛있고 든든하다. 소화도 잘된다. 중국 기스면과 일본 나가사키 짬뽕 역시 닭 국물이 기본이다. 한국엔 백숙이나 삼계탕이 있다.

국내외에서 약으로도 먹는 삼계탕

《동의보감》에 약으로 처방되던 것이 삼계탕이다. 약병아리 한 마리가 통째 들어가고 수삼, 대추, 황기, 밤, 은행, 찹쌀을 따로 넣고 곤 다음 다시 한 뚝배기씩 담아 끓여낸다. 들깨를 넣어 걸쭉하고 진하게 끓여내기도 한다.

실제로 단백질이 부족한 시기, 덥거나 추운 날 닭 국물 한 사발이면 당장 몸이 거뜬해지고 힘이 났다. 동서양을 털어 시름시름 감기를 앓으면 먹는 음식도 닭이다. 미국 가정에서 환자에게 주는 것도 닭고기 수프다.

유럽에서도 '좋은 식사의 최소 조건'으로 닭이 손꼽힌다. 프랑스 앙리 4세는 "모든 국민이 일요일에 닭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농·목축업이 발달한 프랑스에서 마저 닭은 기본 고기였다. (프랑스 축구 대표팀 마스코트는 닭이다.)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

닭이 귀하던 시절, 《동의보감》에서 계삼탕(鷄蔴湯)이라 부르던 것이 지금의 삼계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뭐든지 귀한 순서로 이름을 붙이게 마련이다. 삼(參) 등 약재가 들지 않으면 닭백숙 또는 닭곰탕이라 한다. 큰 닭을 쓰고 국물 자작한 백숙은 고기가 주인공이요, 닭곰탕은 닭 국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니 밥이 주인공이다. 커다란 닭 한 마리를 잡으니 백숙 역시 귀한 음식이었지만 작아도 각자 한 그릇씩 먹는 삼계탕만은 못한 대접을 받았다. 물론 백숙에는 문어나 낙지를 넣어 해천탕(또는 혜천탕)으로 맛과 영양을 보강한 '업그레이드 버전'도 있다.

형편에 따라 값이 마뜩찮으면 닭을 반만 넣은 반계탕, 국물 시원히 끓여내 닭곰탕으로 즐기면 된다. 삼계탕이나 반계탕, 닭곰탕은 어차피 대한민국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를 모으는 '패밀리 메뉴'다.

외국에서도 인기 있는 K-메뉴

삼계탕은 맵지 않고 부드러운 맛에다 진귀한 식재료를 쓰고 색색의 고명 등 만둣새도 멋지다. 이렇다 보니 세계적으로도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약식동원 사상을 신봉하는 중국, 일본, 홍콩 등 동아시아권은 물론이며 수입음식에 굉장히 까다로운 미국에도 삼계탕과 닭죽 패이 두루 꾀쳤다.

닭의 인기는 대부분의 종교적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뿐 아니라 에어프랑스, 아에로플로트 등 외국계 항공사에서도 기내식으로 삼계탕을 채택하고 있다. 삼계탕을 좋아하는 유명인사로는 야구선수 박찬호와 이승엽 등이 있으며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은 거의 매주에 한번 삼계탕을 식사로 정했다고 한다.

교정공무원의 직업소명의식 생성과 발달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 퇴직 여성 교정공무원 사례 연구①

목차

- I. 서론
- II. 선행 연구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제언

~~~~~



송남옥\*



\* 교정본부 심리치료과 교감

\* 아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E-mail: annes78@korea.kr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여성 교정공무원의 소명의식의 생성과정과 내용을 살펴봤고 이를 한 개인의 시간, 교정시설이라는 공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연구는 Clonidine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3차원 측면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결과는 요약하면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직업소명의식의 생성과 발달의 개념으로서 그 시작과 끝은 인간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정공무원의 소명의식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교정 정책적 차원에서의 구체적 제안을 했다.

**주제어** : 교정기관, 교정공무원, 여성 교정공무원, 직업소명의식, 인간에 대한 신뢰, 내러티브 탐구

## I. 서론

교정공무원은 교정기관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수용자들에게 부여된 형의 집행과 구금 업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사회 재적응의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물론 직업훈련, 학과교육, 보건, 위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과거 범죄자에 대한 응보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재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 교정과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최일선에서 구현해 범죄자들의 재사회화 및 삶의 재건을 지원하는 전문 직업인들은 경찰이나 검사, 판사가 아닌 바로 교정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정공무원들은 격무와 24시간 수용자들을 밀착 계호하는 업무 특성상 수면장애는 물론 각종 스트레스와 만성질환에 노출돼 있고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들의 자살, 폭행, 폭언 등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김경태, 2019: 6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교정공무원은 재직 20년이면 10년은 수용자 생활과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에 또 다른 수용자 혹은 직업적 재소자(professional prisoner)라고 지칭되기도 한다(이윤호, 2002: 111). 이러한 고도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업무 특성상 교정공무원들

은 심리적 탈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다. 법무부(2016)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교정공무원들의 24.3%가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개인들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열악한 교정공무원의 세계에서 그동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덜 알려진 분야가 여성 교정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은 물론 소진 등에 대한 연구이다. 교정공무원의 직무는 대부분 범죄자를 다루고 있어 남성 위주의 조직으로 구성돼 있고 대부분 남성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교정공무원의 채용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공무원 채용의 증가에 대해 남녀평등이라는 헌법 정신의 구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여성공무원들은 국내는 물론 여성의 인권이 발달됐다고 알려진 미국에서도 이중의 업무 부담과 승진에서의 제외, 직무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고 있다(Dumas&Stanko, 2017: 597; Ibarra&Petriglieri, 2016: 1).

그동안 여성 교정공무원을 주제로 한 국내·외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 교정공무원들은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 속에서 소외감은 물론 남성 교정공무원들로부터 불편함의 대상이 되고(Zimmer, 1987: 415), 근본적으로 여성은 범죄자를 다룸에 있어 완력이나 육체적 조건이 부족하기에 교정공무원에 적합하지 않다는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존감의 저하는 물론 긴장과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했다. 특히 승진과 업무 배치에 있어 불이익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영&윤옥경, 2015: 7). 여성 교정공무원들은 동료인 남성 교정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수용자들로부터 성희롱이나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법무부(2018) 조사에 의하면, 교정직 등 법무부 산하 여성 공무원들 중 65.5%가 성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news 1, 2018.07.15). 이와 같이 여성 교정공무원들은 젠더적 고정관념(박선영, 2018: 83), 일-가정양립의 어려움(이청은 등, 2020: 165),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 회피(이형우&이동영, 2018: 161), 양성평등의식 부족으로 인한 이직(이승우 & 남재성, 2020: 97)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정시설 내에서 남성과 여성 교정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젠더적 분리의 식이 작동하지 않고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 공무원들은 불이익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보고되기도 한다(Lambert, Hogan&Griffin, 2007: 644).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여성 교정공무원들은 외국의 경우 남성 공무원들에 비해 낮은 임금과 낮은 직급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직업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는 오히려 여성들의 능력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고 보고되기도 한다(Britton, 1997: 85; Glenn et al., 1977: 189; Hodson, 1989: 385; Jackson, 1989: 117; Witt&Nye, 1992: 910).

이런 상반된 연구 결과는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 교정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남성 교정공무원보다 더 열악한 환경, 특히 일-가정 양립을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준의 직업만족도를 보고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연구자는 이를 직업소명의식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직업에 대

한 애정과 헌신은 물론 직무의 의미와 사회적 가치 등을 스스로 발견함으로써 직업인으로서의 발달뿐만 아니라 직업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와 자기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직업소명의식은 직무소진 수준을 낮추고 이직 의도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조직 몫임 등을 가능하게 해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는 물론 직업의 본질적인 목표인 자기 발전과 사회 발전이라는 자리이타(自利利他: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한다)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동원&조남신, 2012: 221; 박진옥&정귀임, 2016: 137; 최은희, 윤미순&이미경, 2021: 25; Galles&Lenz, 2013: 240; Hagmaier&Abele, 2012: 39; Hagmaier, Volmer&Spurk, 2013: 19). 여성 교정공무원들은 조직 내에서 소수자 혹은 남성의 보조자가 아닌 전문 직업이며 교정 조직의 변화의 매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명의식과 소명의식의 형성과정, 그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행된 여성 교정공무원에 대한 연구는 남성 위주의 교정 조직에서 겪는 차별과 교정업무에서 발생되는 직무 스트레스(정혜경, 하영미&박현주, 2014: 111; 김은영&윤옥경, 2015: 7; 김은영&박웅섭, 2016: 9; 곽형곤, 2018: 1), 이직 의도(이승우&남재성, 2020: 97), 등만 수행됐을 뿐 여성 교정공무원들의 직업소명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퇴임한 여성 교정공무원의 직업소명의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여성 교정공무원들의 직업 정체성 확립과 소명의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교정 정책 차원에서의 논의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체성이나 소명의식은 단순한 변수의 확인이 아닌 삶의 이야기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의 내러티브 퍼즐은 다음과 같다. 여성 교정공무원의 직업소명의식의 형성과 직업소명의식의 생성과정과 내용, 맥락은 어떠한가?이다.

## II. 선행 연구

소명(calling)은 본래 종교적 의미에서 사용됐다. 종교적 의미에서의 소명이란 하나님 또는 절대자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으로서 신의 명령에 따라 삶을 준행하고자 하는 결단이다. 이러한 종교적 차원에서 소명은 칼뱅의 종교개혁을 통해 직업소명의식으로 발전됐다. 칼뱅에 의하면 인간들이 이 땅에서 수행하는 직업은 단순한 생계유지나 자기 발전을 넘어 신이 부여한 직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신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권영애, 2020: 9). 현대적 의미에서 직업소명의식은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서 역할을 깨닫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는 물론 개인과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위한 공공의 이익과 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Dick&Duffy, 2009: 242).

그러므로 직업소명의식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이 일의 의미이다.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를

발견한 것이며 특히 급여나 노동조건, 지위 등의 직무 환경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능률을 성취감과 책임감으로 극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teger, Pickering, Shin&Dik, 2010: 82).

국내 보호직 공무원의 소명의식에 대한 연구(고자인&강경아, 2015: 194)에 따르면 그들은 직무만족도는 낮지만 성취감과 책임감이 높았다. 특히 범죄자를 교화시켜 새로운 사회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사명감 등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러한 직무만족은 소명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봤다.

교정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소명의식은 교정이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교정이념은 교정공무원들이 교정 조직과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수행하느냐를 알 수 있는 지표인데, 교정공무원들은 국가 형법을 대리집행하는 수행자이기에 처벌의 집행이라는 임무가 주어지고 동시에 수용자들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변화의 매개자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정이념 지향성 즉, 처벌을 지향하는 입장보다는 교화 개선을 지지하는 입장을 지닌 교정공무원들이 조직 몰입에서 정서적 몰입과 근속적 몰입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이창한, 2013: 135). 소명의식은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 몰입, 의미구성과 같은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고됐는데(Berg & Johnson, 2010: 973), 교정공무원의 경우 직무만족은 물론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교정 직무에 대한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감, 헌신성과도 관계가 있다. 일반 대중들은 교정공무원에 대해 사회와는 격리된 공간에서 수용자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고립된 존재로 보고 있으며, 과거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시절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이나 폭력 등으로 인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이윤호, 2003: 315).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적 평가와 인식은 교정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주고, 교정공무원은 직업 자긍심이 저하되고 또한 직무 만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소명의식이 높은 개인들은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Thompson, Waltz, Croyle&Pepper, 2007: 1786) 시민적 만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Cameron, Dutton&Quinn, 2009). 직업의식은 업무 시간 이후에도 삶의 질(Cardador&Caza, 2012: 338)과 동기강화(Hall&Chandler, 2005: 155)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은 삶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 교정공무원의 업무형태는 현재 4부제(일근-야근-비번-윤번) 근무로 운영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기관에서는 여전히 3부제로 운영되기도 한다. 1988년까지 2부제(야근-비번) 근무 형태로 운영돼 교정공무원들은 개인의 삶은 물론 가정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웠다. 직업소명이 강한 교정공무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모색하고 수용자들의 교정교회를 통해 재사회화시켜 범죄자는 사회 안전은 물론 그 개인의 삶의 질도 제고할 수 있다는 헌신성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국내의 소명의식 연구는 직업소명의식의 구성 요소(김동원&조남신, 2012: 221; Hagmaier & Abele, 2012: 39), 삶의 만족도(권선영&김명소, 2016: 151; Peterson, et. al. 2005: 25) 등에만 집중했을 뿐 소명의

식이 생성되고 발전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도 드문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업소명의식은 전형적인 생산적 개념으로 그 발현과정과 발전과정과 내용,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 방법

#### 1. 내러티브 탐구 접근 의의

본 연구는 여성 교정공무원의 직업 소명의식의 생성과 발현 그리고 맥락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이다. 연구자는 내러티브 탐구 분야에서 고전으로 거론되는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수행했다. 내러티브적 탐구의 철학적 의미는 Ricoeur, P(1983, 1984, 1985; 「시간과 이야기」, 1, 2, 3, (김한식 역, 1999, 2000, 2004))의 서사적 정체성에 기초하고 있다. 프랑스의 현상학적 해석학자인 Ricoeur는 그의 저서 「시간과 이야기」 이야기나 텍스트를 매개로 해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mimesis)를 단순한 줄거리나 모방이 아닌 무토스(muthos), 즉 줄거리로 이해했다. 그에 의하면 개인들은 세 단계의 미메시스 과정을 거친다. 미메시스 I은 전 형상단계(pre-figuration)로서 그 이야기 속에서 스스로 의미를 발굴하고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미메시스는 재형상화(re-figuration)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구성한 자기상과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삶의 방향으로 삼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야기는 단순한 삶의 범위에 대한 개인의 서술이 아니라 정체성과 정체성을 확인하는 매개이자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내러티브 연구자들 역시 인간들의 경험은 이야기로 재구성되고 그 속에서 의미가 발견될 때 잘 이해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특히,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양한 맥락을 도출할 수 있고 그 맥락적 이야기 속에서 체험이 보다 정리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홍영숙, 2017: 1; 김경희&유지영, 2020: 6). 교정 현장에서는 비교적 소수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여성 교정공무원이 어떻게 자신의 직업소명을 깨닫고 이를 실천해 나아가느냐에 대한 연구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의 체험된 삶 속에서 의미를 발굴할 필요가 있기에 내러티브 탐구로 접근했다. 내러티브적 탐구와 생애사 연구 등에서는 한 개인의 이야기는 구조화된 자기상이며 동시에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이희영, 2005: 120; Ronsenthal, 2008: 10).

Clandinin과 Connelly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3차원적 공간이란 개인들이 경험한 시간성 그리고 그 경험의 사회성, 경험이 이루어지는 장소 차원을 탐색하고 이곳에서 연구자와 내러티브 주인공이 여행을 하며 상호작용하는 구조에서 해석을 반복한다(신경림, 조명옥&양진향, 2014; Clandinin&Connelly, 2000). 또한 내러티브는 내적 지향, 외적 지

향, 과거 지향, 미래 지향의 4가지 목적지를 상정한다. 내러티브는 시간성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그 시간이 어떤 구조 속에서 진행되고 개인들은 시간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하느냐를 중시하기에 연구자와 내러티브 주인공이 만나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내면의 세계와 드러난 세계를 동시에 탐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주인공의 체험을 3차원적 내러티브 공간이라는 해석적 공간 속에서 과거, 미래, 내적, 외적 지향의 4가지 목적지를 여행하며 그의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 2. 연구 절차

##### 1) 연구 현장으로 들어가기

연구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연구자와 내러티브 주인공과 관계를 맺는 과정이다. 연구자와 내러티브 주인공은 10년 전 업무상 관계로 처음 만났고 그 이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상담을 전공한 전문상담자로 경력 채용된 교정공무원이며 내러티브 주인공은 공채 교정공무원 출신으로 심리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심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 주인공에게 상담과 관련된 전문적인 부분을 지원했으며 연구자 역시 교정현장의 생리와 수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도구적 목적에서 벗어나 연구자와 내러티브 주인공은 교정공무원인 동시에 상담자인 교정공무원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고민했다. 연구자와 내러티브 주인공은 남성 위주의 권력구조 속에서 교정공무원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과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이 오늘 걷는 길이 내일 교정직에 지원하는 후배 여성 교정공무원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신념으로 일했고, 연구자 역시 초창기 상담전문가에 대한 경력채용자로서 오늘 나의 길이 후배 상담자들에게 거울이 될 수 있기에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두 사람은 업무적인 이야기 외에도 교정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의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1년 은퇴한 내러티브 주인공과 연구라는 구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만났으며 그의 교정공무원의 삶은 물론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하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야기를 내러티브 연구의 텍스트로 구성했다.

##### <표1> 내러티브 주인공의 인구·사회학적 정보

| 이름(가명) | 연령  | 성별 | 학력    | 교정공무원 재직기간 | 현재하는 일  |
|--------|-----|----|-------|------------|---------|
| 교순     | 57세 | 여  | 대학원 졸 | 34년 11개월   | 미술품 지킴이 |

##### 2) 연구 현장에서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자는 연구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후 사적인 만남에서 연구적 관계로 10회의 심층면담을 가졌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 주도형으로 이뤄졌는데 연구자는 필요한 말만 제시하였을 뿐 대부분의 이야기는 참여자 스스로 풀어나갔다. 면담 내용은 사전 동의를 받고 모두 녹음했으며

문서본으로 전사했다. 그 외에도 연구 참여자가 받은 수용자 편지를 수집하여 텍스트로 삼았다.

#### 3) 이야기의 전개

텍스트는 Clandinin과 Connelly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수행했다. 연구자는 텍스트를 15회 정독해 연구 참여자의 체험을 시간적 차원, 사회적 상호작용 차원, 공간성은 교정시설의 3차원 속에서 분석했고, 시간성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시간의 흐름이라는 구조 속에서 겪었던 삶의 과정과 내용 그리고 맥락과 변화에 주목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상호작용 중 특히 수용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잘 드러나는 부분에 집중하여 의미를 분석했다. 공간성은 연구 참여자의 가정이나 학교보다는 그의 삶의 주 무대인 교정기관에서의 경험과 그가 구성한 의미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했다. 연구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연구 참여자의 교정공무원 임용부터 은퇴까지의 삶을 7개의 내러티브 주제로 구성했고 그 중에서 그의 일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풀어나갔다.

#### 4) 연구의 엄격성

연구자는 내러티브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먼저 연구 참여자를 통한 확인 전략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내러티브 연구는 연구자의 단독 저작이 아니라 공동 저작이라는 관점으로 수행했고 자료 분석과 기술 그리고 해석에 있어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했다. 첫째, Lincoln과 Cuba(1985)가 제시한 동료지지집단의 구성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내러티브 연구 방법론 전문가 1인, 상담심리전문가 1인, 교정공무원 1인으로 동료지지집단을 구성했다. 동료 지지집단은 내러티브 연구에서 연구자가 범하기 쉬운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과 독단성을 예방하고 연구가 방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판단된다. 둘째, Denzin(1978)이 제시한 다원화 전략으로 접근했다. 다원화(triangulation) 전략은 질적 연구에 있어서 연구방법의 다원화, 연구자의 다원화, 자료출처의 다원화 등을 제시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출처의 다원화로 접근했다. 연구자와의 일대일 심층면담을 자료로 했지만 연구 참여자가 수용자에게 받은 서신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했다.

연구 참여자의 비밀과 사생활뿐만 아니라 그가 만났던 다양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와 관계된 사람들의 사생활과 비밀보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했으며 그가 근무했던 교정기관이나 관계된 사람들은 모두 익명으로 표시했다. 둘째, 연구 수행 중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 연구에서 연구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획득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연구자참여자에게 내러티브 자료의 보존과 폐기, 열람과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 사용 여부 등을 물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 활용은 다시 한 번 동의 절차를 거치기를 요구했다.

# 제61회 한국교정학회·법무부 교정본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공동학술대회

## 주제: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이해!

지난 6월 3일 동국대학교 혜화관에서 제61회 한국교정학회·법무부 교정본부·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 공동학술대회가 열렸다.

코로나19로 약 2년 반 만에 열린 오프라인 행사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쏠렸다.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자 및 교정실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혁신적인 교정정책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글 최민지 사진 이정도



### 법치행정의 기본은 우수한 교정행정

한국교정학회와 동국대학교 경찰범죄연구소는 6월 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이해'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비롯해 최웅렬 한국교정학회장, 윤성이 동국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조은경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한국교정학회는 매번 주요 이슈가 되는 교정현안을 중심으로 학술 대회 주제를 선정해 토론을 하고, 이를 통해 교정정책의 이해에 대한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기준의 틀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교정정책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병철 교정본부장은 축사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맞는 법치행정의 기본은 우수한 교정행정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중심의 교정패러다임의 탐색과 수용자의 교정에 있어 피해자 역할 및 참여 방안을 논

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아직 교정시설에서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은 미비 하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 교정의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해와 변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교정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복무제도 및 대체역 복무관리의 인권쟁점」으로,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 윤지인 교위는 「성범죄 재범자의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로 교정학술상을 수상했다. 이어 이민희 법무부 교정기획과 교정관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기본 계획'에 대한 특별 주제 발표를 끝으로 본격적인 토론의 장이 열렸다.

###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이해'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

이날 학술대회는 '새로운 교정패러다임의 이해'라는 대주제로, 제1주제 '인간중심의 교정패러다임의 탐색', 제2주제 '수용자 교정에 있어 피해자 역할 및 참여 방안 모색'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제1주제에서 차명호 평택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는 '21세기 교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인간중심 교정과 인간중심 상담 모형'에 대해 발표했으며 조윤오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교수, 유영재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차명호 교수는 "교정의 역사와 관점은 중세 이래로부터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이러한 교정의 의미와 패러다임을 결정하는 중요 요

인은 범죄 원인에 대한 철학적 담론 등이었고, 이에 따라 교정의 양태도 다양하게 변화됐다. 교정의 발달사와 철학적 배경, 범죄에 대한 관점, 심리학적 접근의 이해를 토대로 교정의 과거 패러다임은 몇 가지 제한적 특징을 지닌다"라며 이에 대한 탐색을 바탕으로 인간중심 교정패러다임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주제는 '수용자 교정에 있어 피해자 역할 및 참여 방안 모색'으로 박선영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심혜인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박선영 교수는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피해자 참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발표하며 회복적 교정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이어 회복적 교정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 분석으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의견들은 향후 교정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해 국민과 수용자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정정책을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예정이다.

한편, 교정본부는 앞으로도 선도적 교정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권 친화적 수용환경을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교정교화정책을 발굴하는데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한국교정학회 역시 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중점을 둔 과거의 교정정책에서 인간 및 피해자 회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교정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미래 지향적인 교정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교정본부 NEWS

2022 • July Vol. 554

##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일자·장소**

6. 10.(금) 청주교도소

**참석**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대변인, 대전지방교정청장 등

**주요 내용**

현장 공무원 애로사항 청취, 노후시설 및 과밀수용 실태 점검 등

## 대전지방교정청, 교정위원의 날 행사


**일자·장소** 6. 8.(수) 대전 서구

참석 교정본부장, 대전지방교정청장, 대전청 교정연합회 소속 교정위원 등

**주요 내용** 우수활동 교정위원 감사패 수여 등

## 제2기 교정개혁위원회 위촉식 개최


**일자·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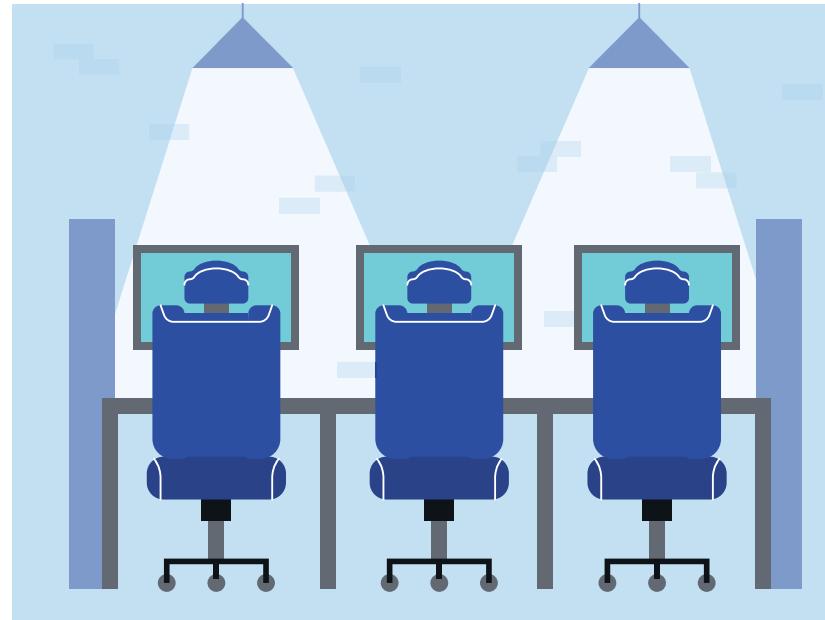
6. 21.(화) 법무부 대회의실

**참석**

(법무부)

장관, 교정본부장, 교정정책단장, 교정기획과장, 보안과장, 교정혁신추진단장 (외부위원)  
위원장 이수정 교수 등 13명

## 보안근무자 인터넷 사용 장소 확대


**시행 일자**

6. 1.(수)

**대상 기관**

전국 53개 기관

**주요 내용**
작업장·수용동 근무자실 내 인터넷 사용 환경 조성  
보안근무자 인터넷 사용 관련 정보보안 사전 조치

##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이동규

### 서울지방교정청장 퇴임식 실시

제34대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이 6월 29일 퇴임식을 가졌다. 신경우 청장은 1989년 6월 5일 임용돼 약 33년간 수용질서 확립과 수용자 권익보호 및 직원 복지 향상 등에 주안점을 두고 근무해 왔다. 이날 퇴임식에는 가족 및 직원들이 참석해 퇴임하는 날을 기념했다.

서울구치소 / 교위 김승일

### 직원 대화 행사 실시

서울구치소는 6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상급직원과 하급직원과의 비대면 업무 추진에 따른 폐해를 회복하고자 당직간부와 소속직원 간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근무환경 개선 방안 수립 및 고충 사항을 공유하는 등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 구인·구직 행사 실시

안양교도소는 6월 21일 출소 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출소를 앞둔 수용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는 외부 기업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총 35명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채용 면접을 실시한 결과 22명의 수용자가 채용 약정서를 체결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윤희수

### 청렴계단 조성 시행

수원구치소는 6월 2일 직장 내 청렴 문화 조성 및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보안 청사 입구 계단에 청

렴계단을 조성했다. 이 계단은 5월 중 실시한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 최우수상을 당선작인 김남중 교감의 '함께해요 청렴실천 행복해요 공정세상'이라는 표어를 비롯해 최근 3년간 기관 내 청렴 표어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구성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이승훈

###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6월 7일 신규 간호서기 2명의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임명장 수여와 꽃다발 전달식을 가졌다. 신규 직원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구치소 / 교사 이남웅

### 합동 소방훈련 실시

인천구치소는 6월 15일 자위소방대 및 각 부서 담당 문서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2분기 소방 및 문서반출 훈련을 실시했다. 수용동 화재 발생 사건을 훈련 상황으로 부여해 초기 진압, 수용자 이동, 중요 문서 반출 등에 대한 실제 훈련을 진행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사 조도현

### 업무협약 체결

서울남부구치소는 6월 13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수용자 진료에 관한 지정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내 수감 중인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외부 의료시설 이용과 입원치료 등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용자의 건강증진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 합동 소방훈련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21일 화성시 남양 119안전센터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청사 차량 대기실에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가상 상황을 설정해 화재진압 및 소방장비 사용에 대한 절차 훈련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채병준

### 족구 대회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5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직원 족구 대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분위기를 활기하는 기회로, 직원들 간 화합과 소통의장을 마련하는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여주교도소 / 교사 홍재성

### 교정위원 참관

여주교도소는 6월 9일 나종제 교정위원회 회장 등 7명이 시설참관을 했다고 밝혔다. 최진규 소장은 "앞으로도 교정협의회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더 나아가 지역 주민 및 사회에 기여하는 교정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황영웅

### 수용자 물품 기증

서울남부교도소는 6월 16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으로부터 손 세정제 1,000개를 기증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수용자의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에 뜻 깊게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기증받은 손 세정제는 수용자의 코로나19 예방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춘천교도소 / 교사 양진호

###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책현장 방문

신경우 서울지방교정청장이 6월 8일 춘천교도소를 방문해 수용자 간 폭행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경우 청장은 목공 작업장과 자동차 정비작업을 둘러보며 코로나19 집단 확산 기간 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의료동 신축공사 예정부지도 점검하며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주교도소 / 교위 김승현

### 업무협약 체결

원주교도소는 6월 8일 화성치과의원과 수용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원주교도소는 수용자의 의료서비스 개선과 안정성을 갖추게 됐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준영

### 업무협약 체결

강릉교도소는 6월 10일 강릉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경화 소장은 "양기관 간 중독문제의 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영월교도소 / 교도 김준일

###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영월교도소는 6월 3일 법무부 심리치료과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지컬케어, 상담 및 스트레스 진단 등을 진행했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도 성명제

### 교정위원 참관

강원북부교도소는 6월 23일 서울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소속 운영위원 17명과 소내 교정협의회 운영위원 5명을 초대해 시설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가족 접견실, 자차 수용동, 지게차 운전 실습장 등을 참관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조상범

### 합동 소방훈련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6월 10일 평택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ABC 분말 소화기 분사 및 옥내 소화전 소방호스 방수 등 소방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부산구치소 / 교사 김치호

### 장학금 전달

부산구치소는 6월 14일 사상구 엄궁중학교와 동주 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직원 성금으로 마련한 장학금 200만 원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직원들은 사랑의 손길기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일정액을 모금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매년 2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강중구

### 합동 방호진단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6월 2일 2022년 전반기 국가중요시설 합동 방호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방호진단에서는 제5312부대, 청송경찰서, 안동소방서 방호 담당자들과 교정시설 무기고, OP, 철조망 이상유무 등 방호실태를 점검했다.

창원교도소 / 교도 강정훈

### 산업안전점검 실시

창원교도소는 6월 9일 2022년 산업안전점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실시했다. 작업장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작업 수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목공 작업장 등 10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부산교도소는 6월 7일 신규 간호주사 시보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설화 간호주사 시보는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돼 설렌다"면서도 "내 삶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부산교도소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포항교도소 / 교사 김병수**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포항교도소는 6월 8일 외부 피지컬케어 전문가를 초빙해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김철민 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동안 직원들이 이 쌓인 스트레스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동교도소 / 교도 신동관**

**도배기능사 실기시험 실시**

안동교도소는 6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 지사 주최로 2022년도 도배기능사 기능검정 실기시험을 실시했다. 이날 시험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습득을 통해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출소 후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다.



**울산구치소 / 교위 황정복**

**화랑훈련 실시**

울산구치소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2022년 화랑훈련을 실시했다. 후방지역에 대한 전·평시 연계된 통합방위시행 절차를 숙달하고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경주교도소는 6월 7일 박정한 신규 간호서기 임용식을 시행했다. 배경석 소장은 "경북북부제2교도소의 의료행정 및 의료처우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고 박정한 간호서기는 "이곳에 오게 돼 기쁘고 의료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김천소년교도소는 6월 7일 신규 간호서기 임용식을 개최해 임명장 전달과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박동수 소장은 "간호서기의 신규 임용을 축하한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윤정수**

**건강검진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6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병원 관계자는 "야간 근무를 하는 직업의 특성상 건강검진은 더더욱 필수라 생각해 성심성의껏 검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통영구치소 / 교사 정덕기**

**합동 소방훈련 실시**

통영구치소는 6월 2일 통영소방서와 산불 대비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가뭄으로 산불

혔다. 고상길 소장은 일주일간 애써준 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밀양구치소 / 교위 양원선**

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김진아 소장은 "앞으로도 화재대응 훈련을 철저히 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통영 구치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 교위 이호현**

**추모 헌화 행사 실시**

대전교도소는 6월 2일과 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故) 김동민 교감 추모 헌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2004년 수용자가 휘두른 둔기에 희생된 고 김동민 교감과 재직 중 순직한 교정공무원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거행하고 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오요한**

**법무부장관 정책현장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월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교정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소내 수용동과 직업 훈련실, 죄사장을 돌아봤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천안교도소 / 교사 조영웅**

**합동 방호진단 실시**

천안교도소는 6월 15일 2022년 전반기 군·경 합동 방호진단을 실시했다. 지난해 후반기 국가중요시설 방호진단 후속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군·경과 연계된 방호계획 및 테러 대비 태세 보완여부 점검을 진행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혜정**

**양성평등 교육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6월 14일 중앙 성교육아카데미 김선영 강사를 초빙해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으로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사례, 국내외 양성평등 관련 사회변화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이경민**

**현충일 참배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6월 3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직원 17명이 국립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밝혔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교도소 / 교감 노호성**

**수용자 물품 기증**

공주교도소는 6월 15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원으로부터 마스크 5만장을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은 공주지청 산하 청소년 범죄예방 공주지역 협의회와 삼화페인트 후원으로 수용자들에게 나눔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현충일 참배 실시**

충주구치소는 6월 14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충주 탄금대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참배했다. 장원재 소장을 비롯해 14명의 직원이 현화 및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와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성교도소 / 교도 정조원**

**교정직 9급 필기합격자 참관 실시**

홍성교도소는 6월 7일 2022년 교정직 9급 필기합격자 8명을 대상으로 청사 2층 직원교육실에서 교육 및 참관 행사를 개최했다. 김종호 총무계장의 교정행정 및 비전에 관한 강의를 듣고 교정 행정에 관한 질의응답을 통해 교정공무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위 강세원**

**간담회 및 참관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3일 천안·아산 지역 유관단체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기관 현황 설명과 개선된 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참관했으며 이를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이도진**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6월 7일 간호주사보 신규 임용식을 개최했다. 김병호 소장은 "맡은 바 책임감을 가지고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구치소 / 교사 김경민**

**심신케어 프로그램 실시**

대구구치소는 6월 15일 심신케어 및 스트레스 측정으로 교정공무원의 행복한 삶 및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2022년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스트레스 진단 및 상담, 피지컬케어, 마음 힐링부스 운영 등 다양하게 진행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윤시현**

**수용자 물품 기증**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10일 경안노회 교정선교특별위원회(교정위원 권택성 등 8명)로부터 수용자 교화지원을 위해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 경안노회 교정선교특별위원회는 "시원한 생수로 수용자들이 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김광희 소장은 생수 기증에 고마움을 전했다.

# 교정기관 NEWS

##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김현수 양성평등 교육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6월 7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김선영 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교육'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직장 내 성인지 감수성 확보 노력과 직원 간 양성평등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인균 합동 소방훈련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6월 2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광주공원 내 현충탑을 참배하고 21일 보훈가족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신용해 청장은 "송고한 희생정신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다.



### 광주교도소 / 교사 전은주 합동 소방훈련 실시

광주교도소는 6월 9일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과 수용자와 직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북부소방서 일곡119센터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훈련 종료 후에는 소방관의 강평을 통해 직원 인원 점검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을 받는 등의 시간을 보냈다.

##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전주교도소는 6월 7일 신규 간호서기 임용식을 개최했다. 박삼재 소장은 "어려운 의료 환경이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순천교도소 / 교위 김기표 시설참관 실시

## 군산교도소 / 교사 김호근 현충일 참배 실시

군산교도소는 6월 2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군산 군경합동묘지를 방문해 추념식을 시행했다. 이날 유기용 소장 등 10명이 참석해 묵념과 현화 등 경건한 분위기로 진행됐으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제주교도소 / 교위 이철우 현충일 참배 실시

제주교도소는 6월 2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국립제주호국원을 방문해 충훈탑에서 참배했다. 이효선 소장은 "국립제주호국원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오래도록 기릴 수 있는 보훈문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장흥교도소 / 교도 김민석 현충일 참배 실시

장흥교도소는 6월 2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남산공원 충훈탑에서 추념식을 가졌다. 장승구 소장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토방위에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해남교도소 / 교도 김호민 현충일 참배 실시

해남교도소는 6월 2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현충탑 광장에서 추념식을 가졌다. 최종일 소장은 "나리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으로서 더욱더 나라 사랑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미술 전시회 개최

목포교도소는 6월 24일부터 10일 간 소내에서 무안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린 미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최국진 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목포교도소 / 교사 류정관 미술 전시회 개최

목포교도소는 6월 24일부터 10일 간 소내에서 무안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그린 미술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최국진 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정읍교도소 / 교사 박승현 현충일 참배 실시

정읍교도소는 6월 8일 호국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맞아 충무공원 충훈탑을 방문해 현화와 함께 참배했다. 이날 행사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 안양교도소 교위 박준석

박준석 교위는 1995년 9급으로 임용된 후 안양교도소에서 근무를 시작해 약 27여년 동안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수용자 스스로 안전 인식이 확립돼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작업 전후 직접 안전교육을 실시해 근무하는 동안 무사고를 기록했다. 또한 접견실 내 공범분리 및 수용질서 확립 등을 철저히 해 교정사고 예방에 노력했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도 배운지

배운지 교도는 철저한 동정 관찰로 소내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중앙통제실 근무 중 수용거실 내에서 수용자가 관복 상의를 목에 감고 양손으로 힘껏 당기는 모습을 발견 후, 즉시 TRS로 직원들을 출동시켜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 천안교도소 교위 정택철

정택철 교위는 코로나19 격리 사동 담당 근무자로 레벨-D의 방역복을 입고 근무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교육했고 수용자에 대해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문진표를 철저히 기록하는 등 확진 수용자의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한 외국인 수용자, 작업 부적응자 및 노인수형자 등을 수시로 상담하며 애로사항 청취와 고충 해소로 안정적인 작업장 및 거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했다.



## 순천교도소 교위 김영식

김영식 교위는 보안과 조사실 담당자로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교도소 내 수용관련 사건 조사 시 엄격한 법적용으로 수용질서 확립 및 수용자 인권 보장에 기여했다.



독자  
퀴즈

관련 사진 연결하기

아래 사진은 월간 <교정>의 각 코너에 실린 사진입니다. 같은 코너에 등장한 인물이나 풍경 사진을  
바르게 연결해 주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예) A-3, B-1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 사진끼리 연결해 주세요.

- |   |                                                                                     |   |                                                                                      |   |
|---|-------------------------------------------------------------------------------------|---|--------------------------------------------------------------------------------------|---|
| A |    | • |    | 1 |
| B |   | • |   | 2 |
| C |  | • |  | 3 |
| D |  | • |  | 4 |

안전이!  
안심이! 가  
알려주는  
**물놀이  
안전수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셔요!**  
(다리→팔→얼굴→가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음주 후는  
**수영 NO!**

**수영능력 과신 NO!**  
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Yes!**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모한 구조 NO!**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119 신고!**



정답 보내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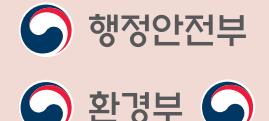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참여방법 퀴즈 정답을 이메일로 송부  
꼭 기재해 주세요! 이름, 소속, 직급, 연락처

독자 퀴즈 및 이벤트 참여자 혜택 해피머니 1만 원권 발송



QR코드를 통해서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교정본부 & CGV 영화 할인 제휴



## 제휴 기관

2022년 7월 1일~12월 31일

## 할인 대상

전국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본부·지방교정청 포함)

## 할인 범위

본인 포함 4인(할인 쿠폰 1매로 1회당 최대 4매까지 동시 할인 가능)

## 할인 혜택

주중(월~목) 1인당 8,000원/주말(금~일) 1인당 9,000원 이용(1인당 5,000원 이상 할인)

매장 내 콤보 2,000원 할인(쿠폰 시스템 개선 후 매장 키오스크 할인 적용 예정)

※ 교정공제회, CGV, 공직자통합메일 가입자가 아닌 경우 사전 가입 필요

(교정공제회·공직자통합메일 가입은 각 기관 총무과에 문의)

※ 공무원증을 이용한 현장 할인 불가

| 구분   | 세부 내용                                                                                                                                                                    |
|------|--------------------------------------------------------------------------------------------------------------------------------------------------------------------------|
| 혜택   | (매표) 2D 영화 주중 8,000원/주말 9,000원<br>(매점) 콤보 2,000원 할인<br>※ 온라인 예매 시에만 적용<br>※ 당사 가격 인상 시 단가 변동 검토 진행                                                                       |
| 판매처  | CGV 온라인 스토어(홈페이지)                                                                                                                                                        |
| 구매과정 | 교정공제회( <a href="http://www.cmaa.or.kr">www.cmaa.or.kr</a> ) 접속 후 복지서비스 클릭 ▶ CGV 쿠폰발행 클릭<br>▶ CGV 로그인 ▶ 공직자통합메일 인증(1회 인증 후 단계 생략) ▶ CGV 쿠폰발행 완료<br>▶ 쿠폰 적용 후 CGV 영화 예매·결제 |
| 기타사항 | 본인 포함 4인까지 가능<br>특별관, 특별 좌석, 자동차 극장, 일부 사이트는 할인 혜택 미 적용<br>※ 제외 사이트 목록<br>(매표) 청담씨네시티, 고성, 인제, 남주안<br>(매점) 청담씨네시티, 고성, 인제, 남주안, 불광, 성남모란, 안동, 용인, 이천, 정읍, 청주성안길          |

